

계간 창 201504 특집호



정현기 作, 〈꽃이 핀다는 건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디자인, 2014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졸업, 2014신시와 초대전, 2013광주
국제 미디어페스티벌 운영감독 역임, 2006~2010광주국
제영 화제 아트디렉터, 현대디자인대전 특선 외 다수, 현재
(주)아트주 대표이사, 바우하우스 대표, 공연순수 운영위
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운영위원.

표지 이야기

유독 메달렸던 올해 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10주년
이 되었다. 재단을 하나의 꽃으로 비유하자면 나는 재비
꽃이라 생각한다. 언뜻 보면 들에 파는 이름 모를 꽃 같고
그 누구도 이 꽃의 이름을 아는 이도 드물다. 재단이 그려
했다, 10년이란 시간동안 마치 재비꽃처럼 눈에 띄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묵묵히 이 지역의 달문을 담아냈고
광주를 진정히 사랑했다. 이러한 재단의 모습을 재비꽃으
로, 10개의 재비꽃은 재단의 10주년으로 표현했다. 삼년이
지나왔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봄의 이 꽃처럼 광주의 메
미른 곳에 꽃을 하나씩 하나씩 피워가기를 바란다.

- 작가 에필로그

발행인 백수인

편집위원장 김정희

특집호 편집위원 김도일 김민정 김원중 김향득
이항준 조덕진 지형원

발행처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주소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금남로 3가), 삼호빌관 2층

전화 062-234-2727 팩스 062-234-2728

홈페이지 www.rcet.or.kr

디자인 도서출판 심미안

전화 062-651-6968

발행일 2015년 4월 15일

창은 우리 거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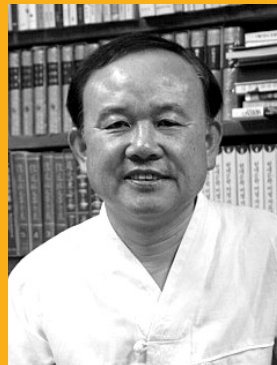
CONTENTS

	여는 시 古典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주년	문병란
2	'창'을 열며 세계의 지역과 문화로 소통하자	백수인
3	창립 10주년 축하합니다! 열 돌의 창, 이제 애향(休鄕)을 만들어야 할 "窓"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돌을 겁도 안나게 축하드려요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큰 배를 띄우는 깊은 강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전고필 지정남 이이남 강혜경 손영희
9	특집기획 - 문화도시 광주, 시민문화재단을 말하다 문화도시 광주,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중앙 문화재단의 광주 유치 및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문화시민이 문화도시 만든다 시민생활과 삶에 직결된 시민문화 향상에 힘써야 문화도시, 여성의 요구와 역할 공공과 민간문화재단의 상호협력	김 성 선재규 김만선 서정훈 오미란 김도일
24	문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관광의 대세는 시티투어, 광주시티투어 제대로 하자 5·18민중항쟁 사적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라!	남성숙 정현기 김향득 곽상희
32	문화현장 디지털세상밖의 감미로운 봄날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는 향교리, 대나무 정원과 미래(未來)이야기 광주읍성의 구조와 절양루의 복원 가능성	김정희 박경동 진시영 김덕진
40	문화청년그룹 지역음악공동체 문화복덕방 탕글	유은숙
42	재단·회원 소식·임원현황	편집부
50	창립 10주년 특집부록 다시 보는 창립선언문 창립의 기억 그리고 현재와 미래 - 역대 이사장 제4대 이사장 축하메세지 창립의 기억 그리고 현재와 미래 - 10주년을 맞이하여 간추린 백서 - 사진으로 본 재단 10년사 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편집부 문병란 김상윤 편집부 편집부
78	창립 10주년 기념 앙케이트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이다!	편집부
80	편집후기	김정희

‘창’을 열며

세계의 지역과 문화로 소통하자

백수인_조선대 교수, 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이 이번 4월 15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라는 명칭에 우리 재단의 정체성과 창립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한 것은 ‘문화’다. 문화가 높은 가치를 갖는 문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할 책무를 스스로 짊어지고자 한 것이다. 둘째 ‘지역’이다.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셋째 ‘호남’이다. 우리 재단을 창립한 단초에는 ‘호남학’의 정립과 연구라는 큰 과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넷째가 ‘교류’다. 다른 지역과 문화로 소통하고 연대하자는 취지다.

우리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광주에 정체성을 ‘문화’로 대체하는 데에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민강좌, 시민대학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 ‘문화’를 각인시키고 확산 시키는 데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다. 광주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공표된 지 10여 년 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가까스로 통과되었고,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우리 재단의 역할도 배가되리라 예상된다.

서울중심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운동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하였으나, 보수정권과 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문화의 측면에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호남학’ 정립을 위하여 우리 재단은 지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호남기록문화 유산”을 집대성하고 콘텐츠화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미 사라지고 없는 ‘광주읍성’을 사이버 안에서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해 왔다. 한편 올해 국비 지원 예산에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에 필요한 2억 원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건립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곳곳과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문화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 그 소통을 향해 떠나는 즐거운 상상!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

창립 10주년 축하합니다!

열 돌의 창, 이제 애향(來 鄉)을 만들어야 할 “窓” 전고필_독립기획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돌을 겹도 안나게 축하드리요이~ 지정날 배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이난_미디어아트 작가
큰 배를 띄우는 깊은 강 강혜경_퓨전국악그룹 아이라아 대표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손영희_아울림공부방 대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역문화조사·발굴·콘텐츠사업, 지역문화담론 및 교류사업, 시민문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화·세계화에 부응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분권, 문화공동체가 바탕이 되는 살기 좋고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1,000여명이 넘는 발기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시민문화재단입니다.



열돌의 창, 이제 애향(徠郷)을 만들어야 할 “窓”

전고필_독립기획자



광주 문화의 커다란 변곡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간 광주는 예향, 의향, 미향의 이른바 3향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광주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의재 허백련과 오지호선생으로 시작되는 미술, 무등산 산림치사들의 실천정신으로 촉발된 의리정신, 너른 프락과 산과 강과 가까운 바다가 준 선물로서 자리잡은 미식문화 등이 광주와 동의어로 선보여온 것이다.

한데 이런 과거를 바탕으로 한 완료형은 있을지언정, 진행형과 미래형은 난망하기 그지없는 형편이다. 수없이 얘기되는 광주비엔날레, 이제 곧 개관하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시민들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은 없다. 그러다보니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고립되기 일쑤다. 서로가 토닥여주고, 비밀 언덕이 되어주는 풍토는 지워진지 오래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기능은 그러는 사이,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류에 더해 고립된 섬과 섬을 잇는 매개자 역할이자, 조력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 하여 『창』에서 주고받는 담론은 때론 성찰이고, 때론 회초리이고, 때론 응원이었지만, 무언가 소갈증을 느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결핍은 바로 우리만의 자장 안에 우리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그래서 창에 던지시 주문을 해 본다. “잘 해왔다. 우리끼리. 이제 우리의 울을 확장해 보자. 빛가람 혁신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호남 곳곳에 새롭게 등지를 틀고 신명을 받치기 위해 찾아온 그분들을 기꺼이 존중해 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아주자.”

2015년, 광주 문화는 가장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절묘한 시점에 조응하면서 때론 중단하는 매체로서 『창』이 가져야 할 프레임은 3향에 더해 “애향(徠郷)”으로 4향의 도시로 가는 선봉장이었으면 한다. 오는 도시, 위로 받는 도시로서 광주. 옛것을 소중히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열린 도시 문화를 만드는 점점에 『창』이 있음이 고맙다. ♪

* 애향(徠郷에서 애(徠)는 “위로하다, 오다”라는 뜻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돌을 겁도 안나게 축하드려요이~

지정남_배우



한 여름, 매미소리가 온 산천을 두드리고 뜨거운 해가 땅심을 한껏 데우고 있을 때 숨이 턱까지 찬 농부는 모자를 벗으며 모정으로 내달려갑니다.

먼저 와 있는 동네 아제들과을 해 농사 풍년을 점치기도 하고, 마동 아제네, 보성 아집네 자식 혼담이야기, 송아지를 낳은 암소이야기로 부채질을 대신합니다. 멀리서 셋거리를 이고 오는 점순이네가 보입니다. 갓 삶은 감자는 더운 열기에도 제 뜨거움을 자랑하고 그 옆에 자리한 막걸리가 아제들을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상상만으로도 배부르고 뽀뽀하고 오진 그림입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높고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진 정자의 도도함이 아닌 낮은 곳에서 그들에게 다리심을 내놓는 편안한 모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인 민초들이 언제든지 내달려가서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마당, 막걸리 잔에 담은 눈물 마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재단이 되고자 지난 10년 동안 부단히 애써 걸어온 걸음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불통은 곧 민초들의 진통이고 고통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에서 소통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문화를 다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마당극을 하는 배우로써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놀이와 노래를 엮은 강강술래, 손 맞잡고 뛰면서 흘린 땀이 서로를 얼마나 끈끈하게 묶어내는지, 울고만 있지 않고 떨쳐 일어나 함께 뛰는 것, 함께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공연을 준비하는 내내 뼈 속까지 느껴집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고운 문화, 값진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십시오.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이남_미디어아트 작가



지난 10년 동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모든 문화의 모태가 되는 지역의 문화자원에 주목하여 수집과 연구, 융·복합적 활용을 이어왔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처럼 지역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집대성하는 일은 과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집대성해서 그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확산해 온 것은 우리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적 현안과 이슈에 대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오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 간 문화교류를 주도해 온 것은 10년간 탄탄한 역량을 꾸려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치 창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려왔고, 건강하고 체계적인 조직을 꾸려 부단히 노력해 온 그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어느 지역보다 문화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2015년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서 지난 20년간 현대미술의 장이 되어온 광주비엔날레 있으며, 다양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유서 깊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가입해 앞으로 빛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야 하는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문화가 꽃피는 곳입니다. 유구한 문화자원들이 많이 발굴되었기도 하지만 아직도 조명해야 할 중요한 유산들이 많은 곳이라 합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도하는 다양한 연구와 교류, 그리고 만남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의 내발적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누구나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소통으로 즐거워하는 일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미래 10년이 쓰여 지길 희망해 봅니다. 이 지역 문화예술에 보다 더 바른 소리로 문화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

큰 배를 띄우는 깊은 강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혜경_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대표

우리 시대의 문화공동체를 꿈꾸며 부단히 달려온 그 길 위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많은 이야기들을 꽃피워냈습니다.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시대의 보편적 가치들을 발굴하고 발전적 담론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10년의 역사!

그 하나의 매듭을 완성 짓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매듭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뜨거운 손들과 함께 연대하고 정성스럽게 모아진 마음을 나누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10년의 역사가 환희의 시간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화의 세기, 글로벌 문화도시 광주를 향한 시선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함께 다가올 사회 환경의 변화는 문화지형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서 다시 '광주다움'은 무엇인지, '광주정신'을 또 어떻게 창조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광주다운 문화콘텐츠는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는 지금,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끊임없이 진화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세계화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류하며 소통한다면, 그리고 문화적 연대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보다 풍요로운 가치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물에 큰 배 뜬다고 하였습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새로운 10년은 보다 넓고, 보다 깊게 흐르는 강물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손영희_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어울림공부방 대표



우리 공부방에서는 지역문화교류재단과 연대하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4년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취약하고 장기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옛 주택과 새로 들어선 아파트와의 공존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곳 방림동에서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마을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옛 모습과 옛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민들까지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밋밋들' 마을만의 문화적 정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주택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마을 뒷편으로 푸르른 산이 감싸고 있으며, 아래로는 광주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우리아이들의 자궁 심은 커져가고, 주민들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이 더 소중한 문화예술교육의 지난시간을 떠올리며 교육의 시작부터 과정 하나하나까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속에 함께 했던 지역문화교류재단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꿈꾸는 문화도시' 나 '문화수도 광주'라는 수식어가 외형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서 또한 뿌리 있고 가지가 튼실하고 잎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튼실함이 혹은 그 풍성함이 큰 건물을 세우고 외형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결이 담긴 문화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곧은 생각을 갖고 올바른 문화의 가치를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지역문화교류재단에게 지난 10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 식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지역문화교류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빛나는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해봅니다. ♪



창립 10주년 특집기획

문화로 행복한 시대, 시민문화재단을 말하다

문화도시 광주,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김 성_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재단 진흥이사
중앙 문화재단의 광주 유치 및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선재균_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문화시민이 문화도시 만든다 김만선_대동문화재단 『대동문화』 편집국장
시민생활과 삶에 직결된 시민문화 향상에 힘써야 서정훈_광주NGO시민재단 이사, 광주NGO센터장
문화도시, 여성의 요구와 역할 오미란_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공공과 민간문화재단의 상호협력 김도일_문화평론가, 재단 시민문화위원장



특집기획

문화도시 광주,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김성_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재단 진흥이사



광주는 지금 비상이 걸렸다. 7월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9월의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월 국제디자인총회까지 줄줄이 열리게 된다. 광주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한꺼번에 3개씩 갖는 경우는 전례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 준비과정에 허점이 많이 드러나 시민 모두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지 않으면 안될 환경에 처해있다.

당면한 과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아시아문화전당 문제다. 지난 3월 초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광주와 그 밖의 지역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했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기간동안 ‘국립’을 유지해 달라는 광주시민들의 요구는 당연했지만 ‘광주만의 특혜’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일부 서울권 언론에 보도돼 광주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부산은 해양중심도시, 대전은 과학중심도시, 서울은 금융중심도시,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다른 지역들은 사회간접자본들 중심이어서 엄청난 재정이 차곡차곡 투자되었다. 광주는 도청 별관문제로 2년간 허송세월하면서 투자가 늦어졌다. 문화전당은 20년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투자될 총 5조 2천억원 가운데 7천억원짜리 사업이다. 그것이 ‘광주특혜’로 전략한 것이다. 광주시나 시민단체는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해명해 왔는지 모르겠다. 더 걱정되는 것은 9월에 개관한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당 안에 무엇을 얼마나 채워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관람객들을 유인할 것인지, 광주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등등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도 창설 20년을 맞아 업그레이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자체가 출발때부터 미래 예술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니만큼 새로움을 모색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20년동안 모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게을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혁을 한다면서 모색하는 안들이 세계와의 열린 공간 역할보다 지역예술활동을 주로 반영하는 이벤트, 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나 국제디자인총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된 것 역시 광주가 고유의 문화적 바탕(예향),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이상성 지향(예를 들어 5·18)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의 5대 도시 중 하나라고 하여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도시의 특성을 광주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느끼면서 공감하고 돌아가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소외된 극단적인 토종기구로 좁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나 국제디자인총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된 것 역시 광주가 고유의 문화적 바탕(예향),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이상성 지향(예를 들어 5·18)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의 5대 도시 중 하나라고 하여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도시의 특성을 광주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느끼면서 공감하고 돌아가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현실을 냉철히 살펴보면 비판적인 상황이 널려있다. 광주가 예향이라 불리어왔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맞으면서 예술의 생산·유통·계승면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광주는 침체에 빠져버렸다.

시민문화단체 역시 광주에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물안에 머물러 전국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법인은 모두 1,316개이다. 그런데 광주·전남은 특수법인의 경우 총 44개 가운데 3개(광주하계U대회조직위원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로 6.8% 비중을, 재단법인은 290개 가운데 16개(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향남문화재단, 의재문화재단, 아산미술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남농미술문화재단과 호남문화재단연구원 등 다섯 개발골단체를 포함)로 5.5%, 사단법인은 982개 가운데 12개(시민문화회의, 한국난연협회, 한국천연염색협회 등)로 1.2%의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 광주시에는 재단법인 2개(광주문화재단 포함), 사단법인 21개, 시민단체 23개가 문화관련 단체로 등록되어있다.

돈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다는 점과 정부부처에 등록된 법인이 지원받기 더 쉽다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는 법인의 등록면에서도 철저히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문화의 중심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코앞에 놓여있는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넉넉한 재원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모든 인적 자원들이 '새 판'을 짜나가는데 몰두할것을 제안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민간문화재단과 행정을 포함한 공적 기관들과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일이다. 둘째, 예술인과 기획자 등 모든 인적자원을 인재풀화(化) 하는 일이다. 셋째, 국제화 또는 전국화 같은 바깥을 둘러보는 시각도 갖자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화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돈-사람-자원-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경우는 돈은 없으며 사람, 즉 인제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방치되어 온 자원 또한 넉넉하다. 네트워크는 민주화 과정에서 그 힘을 확인했고, 미래 거버넌스 사회로 나아가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과거에 따라다녔던 '예향', '민주화의 시대의 영화(榮華)', 또는 '낭만적인 추억' 따위는 모두 잊고, 앞으로 10년간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단체와 개인 등 모든 인적 자원들이 '새 판'을 짜 나가는데 몰두할 것을 제안한다. '새 판'의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민간문화재단과 행정을 포함한 공적 기관들과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일은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시청 혼자 힘만으로는 안된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가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 시민들이 쓰레기행정에 협조해야 할 일 등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쓰시모라는 시민단체, 그리고 시청의 적절한 지원 등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나누어 맡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문화예술에도 적용하여 예를 들어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지원비를 제공하고, 지역문화교류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다른 지역에 전시하고 홍보하여 예술인들의 가치를 높이도록 분업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문화전당 주변의 정화작업이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다. 이 일도 시청이 할 일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시민단체에게 맡기는 일로 나누어서 전개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과 민간재단간의 협력체제도 다시 짜야 한다. 전문화가 진행되어버린 오늘날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행정이 국민의 세금을 움켜쥐고 기획-실천-감독까지 독점적으로 처리했다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가 수두룩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적자산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행정기관은 관리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영리 문화재단은 행정기관과 유용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문화재단은 국가가 모든 일

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둔 장치이다. 광주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단 대부분은 대기업의 후원이나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부로 유지되는 '시민의 재단'이다. 해산되면 국가에 귀속된다. 문화재단은 의사결정과정인 신속하고, 지역사회와 스킨십이 잘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이나 시민이 추구하는 이상(理想)을 이 조직을 통해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앉아있어야 한다는 발상을 광주 특유의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면서 깨야한다.

둘째, 예술인과 기획자 등 모든 인적자원을 인재풀화(化)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문화도시 사업들이 확산될 때 향후 10년 동안 관련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경험을 축적시키고,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광주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예술적 역량을 축적해 오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와 보수, 예총과 민예총, 원로와 소장파 등으로 나뉘어 완벽한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사건건에 감싸라 배짜라 공허한 주장만 난무하고, 조그만 이익을 위해 서로 혈투는 일까지 계속해서야 될 일인가.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주관이나 독창성이 생명인 존재이다. 그런 독창성 때문에 생긴 갈등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사소한 친소관계, 지연, 학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후세로부터 어떤 비판을 듣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하여 이제부터 딱 10년 모든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오직 미래 광주만 바라보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인재풀을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 국제화, 또는 전국화 같은 바깥을 둘러보는 시각도 갖자는 것이다. 우리의 자주성, 주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광주는 아시아 예술인들이 모여 협업하여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문화전당이 자리잡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는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외국의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다. 이들은 광주의 이질적 존재가 아니라 광주를 알고 싶어 찾아온 동시대의 지구촌 구성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광주를 소개할 준비를 마쳤는가. 또 하나, 5·18은 그 이후 광주를 은밀히 도왔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에 민주화로 승화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외국에 보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동떨어진 부분도 적지 않다. 문화전당이 개관하게 되면 공동창작을 하게 될 외국인 예술가들의 거주프로그램이 안착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숫자도 늘리고 그들이 광주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외국인이 특별한 예술적 소재를 요구했을 때, 이뵈었을 때, 출입국관리소가 까탈스러운 요구를 할 때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도 치밀히 대비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거야말로 민간단체와 업무를 분장해야 할 분야인데도 그걸 준비하는 조짐이 없다. 외국인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국제화이며, 광주시민이 추구해 나갈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집기획

중앙 문화재단의 광주 유치 및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선재규_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2015년은 광주 100년사에 다시 찾을 수 없는 최고의 호기라고들 한다. 어느 원로 분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면 후손들에게 향후 100년의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크나큰 죄악을 물려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월 호남 고속철 개통과 7월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10월 국제디자인총회 개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호기를 광주 문화발전의 최대 선물로 만들고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계간지 『창』의 기획특집으로 “문화로 행복한 시대, 시민문화재단을 말하다”를 주제로 지상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우선 발제자의 원고를 토대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여 2015년이 진정 광주 문화발전의 호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발제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문화재단 가운데 광주광역시 소재 문화재단의 수가 적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문화도시 광주가 문화의 변방으로 밀려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문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하지만,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및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정부도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문화재단은 특별법에 설립 근거(아시아문화원, 예술의전당 등)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광주비엔날레, 국립극단 등), 체육·미디어·종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사업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의재문화재단 등)이고, 나머지 법인들은 모두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다. 주무관청을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한 것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법인의 권한과 의무를 달리한 것이 아니다. 둘 다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문화재단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문화재단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끄는 방법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과 같이 올해 9월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용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앙정부 산하 문화재단을 유치하는 노력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 국립극단과 합창단을 아시아예술극장 중극장에, 재단법인 서울예술단과 코리아심포니를 아시아예술극장 대극장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문화창조원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문화정보원에, 유네스코국제이해교육원을 민주평화교류원에, 어린이재단을 어린이문화원에 유치하는 것 등을 광주 시민문화단체 차원에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광주광역시 출연 공법인으로 2011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과거에는 행정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이 일반 행정조직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과거의 행정 영역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일반 행정조직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행정은 문화의 본래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위신뿐 아니라 국부 창출, 지역 발전, 사회통합 및 포용 등의 주요 동력원으로 작동하여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가나 지방정부는 문화행정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문화행정을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밖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문화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점증하는 국민적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광주문화재단이다. 따라서 광주문화재단은 민간의 입장에서 국가나 광주광역시의 문화행정을 위탁받아 광주 문화발전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이 정부나 광주광역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간의 입장에 있지만, 시민 문화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나 광주광역시의 대행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광주광역시와 시민 문화단체와의 사이에서 그 소통과 매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고 조화롭게 수행하느냐의 여부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광주문화재단은 경영 2기 비전으로 “시민의 문화 주체화, 광주정신·문화의 허브”를 설정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동체 조성, ‘문화 트라이앵글’로 협업 체계 구축, 광주문화 복권을 위한 플랫폼 구축, 문화브랜드로 ‘글로벌 시대’ 개척, 나눔·도움의 대동정신으로 문화민주주의 실현이라는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시민 문화단체 광주문화재단’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주 문화의 ‘하모니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집기획

문화 시민이 문화 도시 만든다

김만선_대동문화재단 『대동문화』 편집국장



문화는 도시가 지향하는 환경이다. 문화는 사람으로부터 쉼튼다. 공간과 시간의 프레임 안에서 형성된 산물로, 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유·무형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광주’라는 고유명사 앞에 세계 도시들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라는 표현이 대명사처럼 붙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도시, 광주가 분주하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국제디자인총회 등 광주의 문화지형도가 변하게 될 굵직한 메가이벤트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광주는 4월 2일 호남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이미 한 번의 변곡점을 넘었다. 최고 시속 300km를 자랑하는 ‘2015년형 타임머신(?)’은 서울과 광주간의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며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그 파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체감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수도권으로의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유인책을 강구할 것을 조언했고, 광주시 등 행정기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던 만큼 진행 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최근에는 7월에 열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9월로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듯하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충분조건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운영주체 선정, 시설 개보수에 따른 ‘떠돌이 신세’의 선수 등의 문제로 시끄럽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8개월간의 논쟁 끝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콘텐츠 확보, 안정적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개관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나 광주시 등은 이 같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주함은 행사를 치르는 일부 관계자들에게 국한된 듯하다. 광주시민들은 아직까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광주시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도 메가 이벤트들이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은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침체된 경제 상황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서민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밝지 못했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됐다고 하지만, 서민은 체감하지 못했고 얹어진 지갑에 허리가 접혔다. 매일같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파업, 폐업 등의 소식이 이어졌고, 그

대척점에는 대기업과 재벌2세의 횡포, 슈퍼갑질 등이 자리잡아 절망감을 키웠다.

지역경제는 더욱 침참하다. 경제를 살리고 실업 한파를 넘어서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자치단체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지역민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연봉 4,000만원의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은 보았어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입버릇처럼 외치지만 실천 없는 메아리만 공명할 뿐이다. 서민들은 빠듯한 살림살이에 매달려 문화도시,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염두에 둘 여력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 광주’는 도시 공간적 의미보다 그곳을 채우고 있는 ‘시민’이 우선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상징은 없고 형상만 남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람(시민) 없는 문화 도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필자가 눈여겨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발제문에서 주장한 대로 민간문화재단과 공적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한다면, 행정기관과 일반 시민의 시선이 어긋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민 문화재단은 이처럼 행정기관과 시민의 어긋난 시선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행정의 경우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일반 시민에게는 높은 벽이고,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행정이 모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 문화재단이 일부는 사업을 위임받고, 또 일부는 자체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사)대동문화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등 문화 예술 교육이나 교류, 문화유산 답사,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사업 등이 한 예이다-을 시행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문화재단의 역할과 관련해 몇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문화재단이 영리사업을 하는 문화재단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철저하게 공공성에 뒤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문화 단체의 경우 표면적으로 공공성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당초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이는 문화단체의 열악한 존립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재단들이 상대에 대한 견제보다 ‘문화도시 광주’라는 큰 틀에서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도시, 광주’는 아직까지 ‘예향’에 비해서는 학습된 표현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만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문화전당만 하더라도 7,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쏟아부어지는데 ‘다른 단체보다 먼저 우리가 할 일’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도 ‘문화예술단체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생각은 깊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재단들이 서로 적극 공유하고 소통해 윈-윈하고 그것이 광주 문화의 ‘토털파워’로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지역 문화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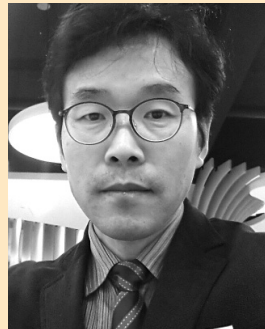
발제문에서도 언급됐지만, 광주지역의 문화단체 수는 전국 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화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하겠지만 각종 사업 시행이나 지원에서 우선 고려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광주의 핵심은 시민이다. 문화시민이 문화도시를 만든다. 시민 문화재단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역할을 다할 때 시민들의 향유 기회가 늘고 문화지수를 높이며, 더욱 매력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집기획

시민생활과 삶에 직결된 시민문화 향상에 힘써야

서정훈_광주NGO시민재단 이사, 광주NGO센터장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문화전당 개관을 앞둔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 모아지고 있고 문화도시 광주의 새판 짜기 필요성과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자세는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선 따져볼 부분이 존재한다.

아시아 문화전당하면 항상 자책하게 만드는 문제가 도청 별관문제이다. 광주의 시민사회를 두고두고 주눅 들게 하는 대목이다. 2년간의 허송세월로 전당 개관에 차질을 주었음을 거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나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냐 하는 것이다. 소위 책임론을 모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 더 중압감을 주는 질문은 개관이 되면 전당 안에 무엇을 채워서 운영할 것인지, 관람객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이러한 물음과 추궁 앞에 괜히 망막감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장 쉽게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갖게 된다. 근본문제는 광주문화도시 조성의 특성에서 발생한다.

엄격히 말하면 광주문화도시는 지방정부가 발원한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주도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주도성이 강한 유형에서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담론 접근이 용이해지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원활하다. 나아가 지자체의 문화 행정과 정책을 정당화하는데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작금의 광주문화전당 사업은 담론 경쟁만 무성할 뿐 문화도시의 이념과 가치가 지역 시민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광주문화도시 선포가 있고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입증해 주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안에서 간혀서는 안 된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동시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성과 무관하지가 않아야 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흔히들 광주비엔날레를 놓고 광주의 개입, 즉 토종 기구로 전락될 가능성을 염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순전히 문화 행정이나 기획자의 입장에 치우쳐졌음을 알 수 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시민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비엔날레는 과연 무엇인가. 매우 비판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광주비엔날레는 대다수의 지역 예술인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로 비춰진다는 편견을 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눈에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과 무관한 하나의 의례적인 국제 행사에 불

광주문화도시를 향한 문화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문화'를 진작시키는데 있다. 행정은 이를 위해 오직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고 지원하는 업무에만 힘써야 한다. 문화시민단체와 중간조직인 지역의 문화재단은 이를 최고의 역할로 삼아서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과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척박한 환경에 놓인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예술성을 뒷받침 할 문화 인프라 형성 과정이 병행되지 않는 채 오직 비엔날레의 세계화만 걱정하고 있는 지경에서 공허함만 키워가는 것은 아닌가. 광주가 이점에서 게을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이다.

지적한대로 예향 광주라 불리는 곳에 예술의 생산·유통과정이 수도권에 비해 터무니없이 뒤쳐져있다. 문화관련 법인과 시민단체의 분포도 보잘 것 없이 허약하다. 이러한 수준에서 당장 문화중심도시의 면모와 역할을 발휘하기에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문화도시를 향한 '이제부터'라는 원초적인 생각과 시작의 의미를 갖자는 점에 공감한다. 그런데 시작의 의미가 단순한 문화전당에 관한 콘텐츠 운영과 이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따지는 것에 멈추어서는 곤란하다. 기왕 새 판짜기를 하려면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지대로서 확장의 의미와 문화도시의 근간이 되는 시민문화 형성이라는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제일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이자 아시아문화전당 성공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문화전당의 흥행에 관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 흥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행정의 몫이다. 문화전당 흥행의 책임을 광주에 떠넘기거나 시민들께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관람객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한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울, 부산, 도쿄 등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문화전당으로서의 '아시아성'을 포괄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중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포섭하지 않고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전당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일고 있는 중동 붐과 함께 중동아시아 지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을 아시아문화전당이 포섭하는 것은 국제화의 지름길이기도 하려니와 전당 운영에 주요한 내용일 것 같다.

광주문화도시를 향한 문화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문화'를 진작시키는데 있다. 행정은 이를 위해 오직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고 지원하는 업무에만 힘써야 한다. 문화시민단체와 중간조직인 지역의 문화재단은 이를 최고의 역할로 삼아서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문화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적으로 독점하고, 공간구성 과정에서 행정과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 편입시키려는 경향은 견제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시민의 생활과 삶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기초한 도시공간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민주체 문화도시 구성의 기본 관점이란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특집기획

문화도시, 여성의 요구와 역할



오미란_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되어 최대 현안이었던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도청 별관문제, 국립으로 고수하려는 운영주체 문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공방, 예산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을 앞두고 문화도시 광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지점에서 발제문에서는 광주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 두 가지, 모두를 극복하는 문화도시 광주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관련 기관의 역할 재조정, 둘째, 인적자원의 인재풀화, 셋째, 문화관련 시각의 국제화·전국화를 제시하였다.

발제문에서 제기된 주장은 큰 틀에서 볼 때 분명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란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주체와 향유 주체가 가까울수록 동질성을 획득하고 공감도가 커진다는 점과 더불어 상징성을 적극적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광주의 철학에 대한 공감과 합의에 대한 시민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발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문화를 누가 생산하고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연계된다. 즉 문화도시 광주가 문화 특정성과 보편성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된다. 문화도시와 관련된 논의가 수없이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요구는 거의 수렴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광주여성재단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광주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광주 지역 최초의 여성 축제인 '문화난장'을 3년째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영역에서도 '성평등'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장하는데 작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문화의 생산자는 문화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향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진정한 문화도시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성들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 문화의 접근성은 점점 확장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확실성에 대해서 문화 다양성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여성소모임 중에서 문화영역 소모임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작가회 등 전문가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미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아마추어 문화인력과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인력의 성

광주는 여성문화 인력의 잠재성이 높은 곳이고, 여성문화 자원 또한 보유하고 있다. 양림동에서 공동을 잇는 근대여성역사의 자원은 광주 문화도시의 중요한 상징자원이며, 여성정체성과 관련된 핵심자원이다. 따라서 문화도시 광주에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 참여를 실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영역에서 세대공감과 계층공감, 영역공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콘텐츠 개발, 플랫폼의 재구축과 조정이 필요하다.

장을 위한 문화공간의 부재는 광주여성들의 최대 숙원 과제이기도 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광주여성들은 여성문화전용 공간의 확보를 정책의제로 제기할 정도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성문화 콘텐츠의 부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광주가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시설은 더욱 그러하다. 여성들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주제와 영역에서 다양성과 참여형 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터미널이라고 불리는 복합공간 조성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을 포괄하는 영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는 여성문화 인력의 잠재성이 높은 곳이고, 여성문화 자원 또한 보유하고 있다. 양림동에서 공동을 잇는 근대여성역사의 자원은 광주 문화도시의 중요한 상징자원이며, 여성정체성과 관련된 핵심자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화콘텐츠나 시설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자원은 아시아문화전당과 거리접근성도 뛰어나고, 5·18과 관련된 상징성(구 YWCA, 현재 조성되는 5·18 여성사전시관 등을 포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일운동과도 연관성이 있는 자원이다. 전 세계 어디에 이런 여성역사문화 자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문화관련 시설이나 단체, 심지어 여성문화 인력조차도 이에 대해 누구도 문화도시에서 이러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 최근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남구와 광주광역시에 정책으로 제안을 한 상태이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야기나 사적이 문화가 되는 과정은 자원이 갖는 의미의 상징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문화생산 주체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의 시도로 광주여성재단에서는 문화축제인 문화난장을 개최하고, 성평등 문화콘텐츠, 공간스토리텔링 등 성평등 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1%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도시 광주에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 참여를 실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영역에서 세대공감과 계층공감, 영역공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콘텐츠 개발, 플랫폼의 재구축과 조정이 필요하다. ♡

특집기획

공공과 민간문화재단의 상호협력



김도일_ 문화평론가, 재단 시민문화위원장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교류재단)은 지역문화를 통합적으로 연구, 교육, 실천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이론적 전망,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된 민간 문화재단이다. 교류재단은 생산적인 문화담론 창출과 지역과 대학과 시민사회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역량의 결집,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류재단은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당파적, 공익적,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가진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사업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과 사이버 광주음성 구축 사업과 같은 지역문화조사 연구사업, 정부 문화정책 변화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또는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와 논평 그리고 문화담론지『창』 발간과 같은 지역문화 교류 및 담론사업,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과 같은 시민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시민사회의의 비판적 기능이 상실되면서 광주문화재단 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사업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견지하고 있다.

문화의 과정

광주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빛가람 나주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가동과 호남선 KTX 개통,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목전에 두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문화도시 광주,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적기관과 민간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지역 내 문화계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문화 인력에 대한 효율성 제고, 세계화 시대에 맞춰 문화의 동질성 확보와 나눔의 연대뿐만 아니라, 광주는 새로운 과정에서 변환되어야 할 많은 문화 과제들이 쌓여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 계속 되면서 광주의 문화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점진적인 문화변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상은 그리 쉽지 않다. 문화는 사전적 의미로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으로써 시대의 양식이다. 따라서 우

공공재단은 민간 문화재단의 전문성에 따른 정책 공조나 교육사업, 또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발전 등 협력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공공과 민간문화재단은 암묵과 묵계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문화재단의 공통된 목표는 예술 생산의 향상과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기쁨을 향유하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 있기 때문이다.

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문화에서의 점진적인 변동을 인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광주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문화의 변방에서 아시아문화의 교류와 협력의 창구로써 새로운 문화민주주의의 중심을 지향하고 있다. ‘중심’이란 단어가 새로운 문화 질서 재편의 상하 종속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광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민주, 평화, 인권과는 위배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속뜻은 새로운 ‘전형’ 창출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광주의 문화과정은 기존의 관습과 관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협력의 시대

지역 자체가 정치·경제·문화 모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부문만을 분리해서 언급 할 수는 없지만, 개중 문화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내 동류 재단 간 협력은 광주 문화 과정의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광주에는 교류재단과 같이 시민의 기부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문화재단들이 있다. 개인의 기부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국내의 경우 민간문화재단의 지원의 확대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공공영역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 문화재단의 관 주도하에 행해지는 사업들의 비전문성, 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등 공공성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만 하였을 뿐, 민간재단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진 못했다. 또한 민간문화재단은 공공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보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관계도 형성된다. 공공재단은 민간 문화재단의 전문성에 따른 정책 공조나 교육사업, 또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발전 등 협력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예를 들면 교류재단과 같이 문화와 관련된 유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우는 상호 정책 공조를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공공과 민간문화재단은 암묵과 묵계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문화재단의 공통된 목표는 예술 생산의 향상과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기쁨을 향유하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 있기 때문이다. 

문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 개정,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성숙_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재단 이사

산고에 산고를 거듭한 결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긴 했지만 염원대로 9월 개관은 제대로 할지, 그 이후 운영은 기대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앞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문화프로젝트로 광주를 문화 허브로 도약시킴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전 국민,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인을 향유 대상으로 국가적 문화위상 강화를 추구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목적이 다 달성되어야 비로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할 수 있는데 정작 성공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이나 인력확보해야 할 시간에 특별법 개정 등에 힘을 쏟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개월 남겨놓은 현 시점의 진행 상황은 우려스런 부분이 많다.

가장 중요하게 넘어야 할 산은 정부의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다. 지난 산고의 과정에서 지켜봤듯이 광주가 생각하는 문화중심도시 방향과 정부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광주는 정부의 사업으로 본 반면 정부는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전당 개관 전에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지역특혜가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사업이며 이 사업의 향유 대상은 광주시민이 아니라 지구촌 전 세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조직이나 전문인력, 예산, 콘텐츠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2007년 10월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 규모가 5조2천9백억이다. 이중 40%인 2조9천8십억이 환경 조성과 하드웨어 건립에 투입되고 2조3천억 정도가 사업비다. 이 재원 중 지방비 규모가 1조원 이상이다. 이 엄청난 재원이 원활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금 마련 대책과 민자 유치를 위한 물적 제도적 장치도 시급한 시점이다.

더불어 진정한 '문화발전소'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한다. 문화전당의 연면적은 16만1237㎡로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큰 문화공간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보다 크다. 문화창조원 내 제1복합전시관은 축구장 넓이로 지하 1~4층까지 조성됐다. 아시아예술극장의 대극장은 최대 2000명을 수용한다. 웬만한 수준의 전시·공연으로는 이 넓은 객석을 채우기 쉽지 않다. 강력한 흡입력을

이제는 갈등을 접고 상생을 생각할 때다. 광주가 진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려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도시 중에서도 가장 문화도시라는 칭찬이 나올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 광주만의 고유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역사유산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경관이나 미관을 가꿔야 하며 전 시민이 문화도시다운 문화정신과 행동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광주의 현명한 판단과 자세가 그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가진 공연·전시 콘텐츠를 확보 없이는 아시아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관심도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관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중요한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몇가지 제시된 콘텐츠 개발계획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평이다. 더구나 검증되지 않은 다문화 퓨전 장르를 구상하고 있어서 대중성을 외면한 실험을 위한 실험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관 이후 여론이 서울 예술의 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 라고 나오면 큰일이다. 현재는 콘텐츠의 경쟁력 경쟁력을 끌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광주의 노력이다. 정부 사업이라며 손을 놓는다면 정말 중요한 과실을 얻지 못할 것이다. 광주시는 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빛가람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인력이 지역에 집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7대 문화권의 조정에 일부 문화권의 빛가람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문화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제는 갈등을 접고 상생을 생각할 때다. 광주가 진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려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도시 중에서도 가장 문화도시라는 칭찬이 나올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 광주만의 고유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역사유산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경관이나 미관을 가꿔야 하며 전 시민이 문화도시다운 문화정신과 행동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동시대성 예술로 아시아 문화를 이끌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조성사업은 광주의 도시적 기반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환경 조성과 예술진흥,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문화교류도시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도시발전 전략이다. 광주 내부의 문화도시 역량을 단단하게 하고 그 힘으로 전 국민, 아시아, 세계인이 광주를 발판으로 문화충전 문화발전 원동력을 발견해가도록 하려면 전당 개관 전에 지역민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정치권과 행정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치밀하게 전략전술을 세워가야 한다.

지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광주의 현명한 판단과 자세가 그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문화진단

관광의 대세는 시티투어, 광주시티투어 제대로 하자!



정헌기_아트즈 대표, 재단 운영위원

시티투어는 최근 들어 여행 경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하다.

2008년 한국관광공사 ‘시티투어 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여행형태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인 5점 만점에 평균 4.04점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고,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여행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처럼 시티투어가 늘고 인기 있는 내막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여행비용이 저렴해 경제적이고, 두 번째는 투어버스로 이동하니 편리하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문화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니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티투어는 어떨까? 광주와 부산을 비교해보자.

내용을 보자면, 광주시티투어는 5월말부터 11월까지 토, 일요일에만 투어를 실시하는데, 1코스와 2코스로 나뉘어 있고 1코스는 역사문화탐방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소재원, 광주호수생태원, 충장사(평촌도예공방),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이고, 2코스는 과학 전시관 관람으로 광주김치타운, 국립광주과학관이다.

부산은 해운대, 자갈치시장, BIFF광장, 부산박물관, 태종대 등 부산 시내 곳곳을 도는 말 그대로 시티투어를 한다. 이에 비해 광주는 양림동을 제외하고는 광주 외곽을 돌고 있으며, 2코스 같은 경우는 빈약해서 뭐라고 평하기조차 힘들다. 물론 부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데다 부산의 속살을 하나씩 보여 줄 수 있는 투어 코스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광주는 제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코스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심지어 소재원은 담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주시티투어에 포함되어 있으니 마치 광주는 스스로 ‘여긴 볼 것이 없어’라고 시인하는 듯하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철도 여행상품인 ‘내일로’의 경우, 담양, 순천, 여수는 매년 매진사례를 이루는데 비해 광주는 신청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한다. 광주시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광주는 관광자원이 없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타 지역처럼 없으면 개발하는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10여년 전에 조성되어 현재는 주말과 평일을 가릴 거 없이 발 디딜 틈이 없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대구의 근대역사골목투어와 김광석 거리 등은 생긴지 몇 년 안 됐지만, 이미 좋은 관광 코스가 되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평일에도 북적이는 관광객들로 인해 숙박업소는 물론 찜질방도 자리가 없을 정도다. 몇 년 전 대구가 근대역사마을조성을 계획할 당시 자료 조사차 광주 양림동을 방문한 대구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광주 양림동은 정말 많은 근대역사문화유적과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대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공무원이 최근 다시 양림동

을 찾은 후에는 이런 말을 말했다고 한다. “최근 훼손된 양림동을 보니, ‘우리 대구가 정말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양림동은 오지도 않은 관광객들을 위해 오래된 골목의 집들을 싹 밀고 관광버스들을 위해 대형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을 때 대구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나온 대구의 인기 콘텐츠가 바로 골목투어와 김광석 거리이다.

광주는 있는 자원조차 개발 못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정확한 수요조사나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시티투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게스트하우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가 대형 국책사업 개관이나 국제행사로 인한 숙박 문제의 솔루션처럼 이야기되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게스트하우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투어, 즉 광주 도심의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게스트하우스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광주는 저가형 비즈니스호텔이나 모텔 등이 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만 해도 작년 12월까지 등록된 것만 10개였던 것이 지금은 20개가 넘는다. 이러한 증가가 관광객들의 증가와 그로 인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자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정확한 수요조사와 관광활성화 없이 마구 늘어난 것이라면 무책임한 장려가 문제만 키우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급선무일까?

첫 번째로 광주의 도시관광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광주 시내권에 좋은 관광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충장로와 금남로만 해도 화신모텔, 남양회관, 영흥식당, 신락원 등 명망높은 음식점들이 많고, 광주향교, 80년 된 광주극장, 광주공원 포장마차거리 등 아직 가볼만한 곳들이 많다. 거기에 동명동 카페문화거리, 대인관광시장, 양림동까지 가세하면 어느 지역 못지않은 상당히 풍성한 관광자원이다. 또한 대촌, 시화마을, 월봉서원, 지산동, 윤림동 등 아직 미개척된 보물들이 널려있다.

두 번째는 투어코스의 개발이다. 특정 장소에 기반해 그곳에 얹힌 스토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먼저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뽑아내고 정리한 다음 그에 맞는 장소를 매칭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2014 창조관광사업에 ‘예술더하기 여행’ 팀이 있다. 이 팀은 단순히 장소 중심이 아닌, 기존의 여행에 예술적 감흥과 오감을 활용한 체험요소를 결합해 풍성한 여행의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공정여행팀이다. 광주시는 이처럼 좋은 여행 상품을 장려하고 그들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KTX 내일로가 양림동을 연결하고 싶다는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프로그램’이었다. ‘와서 보고 머물고 체험해서 가져갈’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민간에 요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분명 단시간에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대인시장은 근 10년 가까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해, 드디어 ‘야시장’이라는 히트 상품을 내놓았다. 양림동, 대촌, 시화마을, 월봉서원, 사직동, 충장로, 금남로 등을 잇는 거대 로드맵은 민관의 끈기있는 공조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



© 대구 중구

김광석 길

문화진단

5·18민중항쟁 사적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김향득_ 사진작가, 재단 운영위원



5·18 민중항쟁 표지석은 광주 전남에 97곳이 산재되어 있다. 그 중 29개가 광주지역, 나머지 68개는 전남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함평 7개, 무안 5개, 목포 12개, 해남 8개, 강진 7개, 영암 8개, 나주 11개, 화순 10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5·18 민중항쟁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쫓겨하고 항거한 지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세워진 5·18 민중항쟁 사적지 표지석은 관련 지자체나 5월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훼손·파괴·멸실되거나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해당 지자체가 5·18 민중항쟁 사적지 관련 규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련법이나 조례 등이 있어야 사적지 나름대로 보존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전남 68개 지역 5·18 관련 사적지는 관리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사적지 보존에 관해서도 의식이 미미하고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 역시 5·18 사적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5·18 사적지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우가 허다하다.

건물 맨 뒤 구석진 곳이나 도로로 걸어서 가지 못하는 곳에 위치한 곳들도 있고, 부실한 설명을 한 곳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5·18 민중항쟁사적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존해 나가는 것이 하루바빠 이루어 졌으면 한다.▲

〈전남 5·18 민중항쟁 사적지〉

지역	5·18 민중항쟁 사적지			
목포	(구)검문소 (구)시민극장 (구)중앙정보부 터	목포전문대학 교정 중앙공설시장 안철장로 안집 입구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구)목포 MBC 입구 (구)중앙교회	2호 광장 (구)경찰서 목포역 광장
나주	나주시청 버스터미널 앞 영강 삼거리	(구)나주군청 앞 축협 영산포지소 앞 산포비행장 도로	남고문 광장 예비군 대대본부무기고 (구)나주공고 앞	나주 삼거리 영강예비군무기고
화순	군청 앞 화순경찰서 만연사 입구	시외버스터미널 옛터 화순경찰서 4거리 (구)역청공장 내	화순역 광장 화순광업소	너릿재 옛 714대대 앞
강진	군청 앞 강진농고	강진터미널 앞 강진의료원	청년회의소 강진읍 교회	남도장여관 옛터
해남	대흥사 입구 해남중학교	우슬재 우슬재 정상	군청 앞 광장 군부대 앞	대흥사 여관 터 남도레미콘 앞
영암	영암군청 매일시장 앞	신복삼거리(구/장터) 영암읍 삼거리	(구)신복터미널 영암읍오거리로터리	시종면사무소 도포 상리제
무안	무안군청 내 청계면사무소	버스터미널	자산군부대	망운면사무소
함평	함평군청 앞 학교역 광장	학교면 사거리 신광면사무소	함평읍 기산공원 대동면사무소	함평읍사무소



1 광주기독병원 2 강진터미널 3 옛 목포시민극장 4 함평 대동면 면사무소 앞 5 해남중학교 6 화순경찰서 사거리

문화진단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라!

곽상희_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

청년과 청년문화

청년이 화두다. 1997년 IMF이후 ‘청년 실업’은 악화되고, 〈88만원 세대〉라는 청년담론은 청년문제를 전면에서 등장시켰다. 이후 이태백, 3포세대 등 술하게 생산된 청년담론은 이 시대 청년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세대로서의 청년을 벗어날 때이다. 저성장 기조는 굳건해졌고, 노동구조는 변화했고, 기성세대가 달성했던 초과이윤으로 인해 미래의 빛은 더 커졌다. 60년 동안의 수도권 집중 구조는 지방 청년들을 초토화시켰다. 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문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청년이 화두라면 청년문화는 관심의 바깥에 있다. 저항과 낭만으로 대표되던 청년들의 문화는 사라졌다. 2012년 대학가요제의 폐지가 단적인 예다. ‘공장의 불빛’을 노래하던 청년 김민기는 없다. 대중성에 도전하던 청년 김광석도 없다. 청년문화는 아이돌 스타의 천하통일이다. 대학축제는 걸그룹의 무대로 점령되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아이러니다.

청년과 청년문화는 ‘청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전제이다. 청년의 발전은 한 시대의 발전이었다. 산업화 시대의 청년이 그랬고, 민주화 시대의 청년이 그랬다. 지금 시대 청년은 시대의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 시대 문화의 발전은 청년문화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다. 변화와 혁신이 본능인 청년문화는 한 시대의 문화발전권을 건인했다. 기득권에, 고루한 것에, 반복되는 것에, 도전하고 넘어서려는 ‘청년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안’과 ‘다양성’, 두 개의 키워드

2015년 7월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다. 대학생의 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스포츠 대회를 통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청년도시 광주’로의 도약이다. 청년도시 광주는 10년을 준비해온 문화도시 광주에 ‘청년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힘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제시된다. ‘대안’과 ‘다양성’이다.

대안문화는 기성에 대한 반란이다. 저항이다. 변화이고 새로움이다. 막대한 자본의 힘을 가진 CJ는 ‘문화를

2015년 7월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다. 대학생의 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스포츠 대회를 통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청년도시 광주’로의 도약이다. 청년도시 광주는 10년을 준비해온 문화도시 광주에 ‘청년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힘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제시된다. ‘대안’과 ‘다양성’이다.

만드는 일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매스미디어가 중앙에서 내리는 주류 문화의 반대축에는 비주류 문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밟디딘 땅에 뿌리를 박은 문화는 확일성을 거부한다. 비주류 문화는 늘 새롭고 싶은 도전, 청년성의 또다른 이름이다. 광주와 전라도가 가진 기성에 대한 거부와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가 청년성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청년성의 DNA를 발전시켜서 광주가 ‘대안문화’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다.

문화의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이다. 천개의 아시아라고 말하듯 아시아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도 다양성이다. 다른 사람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은 다양성의 실현이다. 다양한 것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창조는 다양성의 결과이다. 위대한 창조자들은 모두 청년 정신으로 다양성을 실천해 왔다. 다양한 문화와 마주치고 자극받으면서 청년들의 창조적인 불꽃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광주이기를 바란다.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시 시대가 청년을 부른다. 이때 호명되는 청년은 변화와 혁신, 창조적 주체로서의 청년이다. 시대의 선두에서 왔던 광주가 다시 청년시대의 선두에 설 때이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점으로 광주는 청년들의 도전으로 도약한다.

U대회 기간 중에 광주에서는 청년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온갖 끼와 열정을 가진 광주의 문화생산자와 그들의 무대를 멋지게 만들어줄 광주의 문화기획자는 모두 청년이다. 또 광주의 청년문화인들은 전국의 청년문화인들과 만나게 된다. 광주에서 별들을 발굴하는 메인행사를 비롯해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청년시장(市場), 미래와의 대화, 25시간 밤샘 파티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축제이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 뜨거운 함성으로 7월 한여름 광주를 점령할 것이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출발선에 서있다. 청년이 미래를 열고, 그들이 열어주는 미래 속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청년도시 광주는 우리의 새로운 꿈이다. 

문화현장

디지털 세상 밖의 감미로운 봄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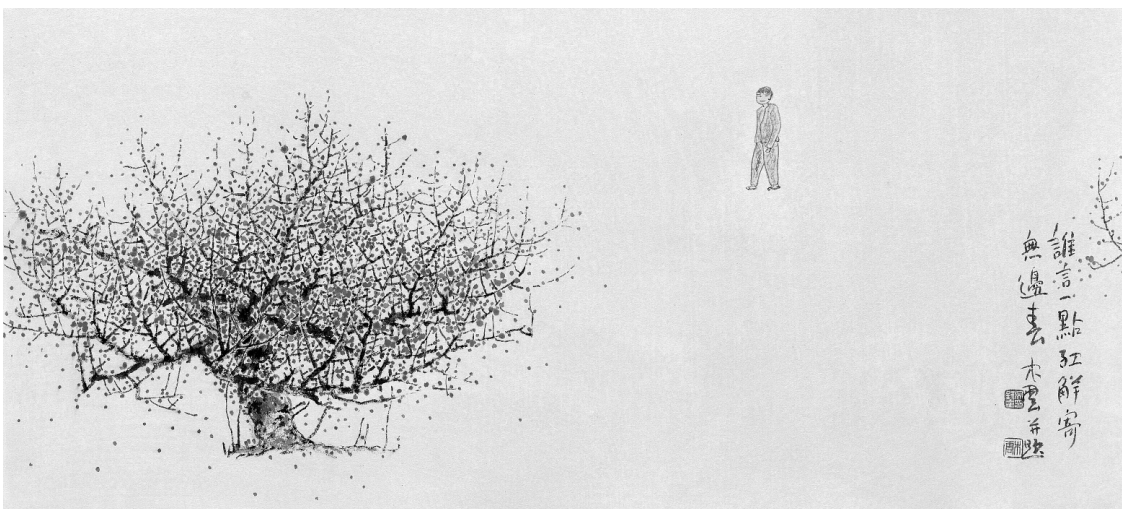
— ‘봄날을 부탁해요’
오건규, 한희원, 박태후 3인 초대전

김정희_시인, 재단 운영위원장

어김없이 봄이 왔다. ‘봄날을 부탁해요’

경어체의 전시회 제목이 주는 아련한 향수에 이끌려 3월의 이른 봄날 로터스 갤러리를 찾았다. 절 마당 한편에 희고 눈부신 매화의 개화는 은은한 절창이다. 겨우내 닫아두었던 꿈이 현실의 풍경으로 다가서며 봄은 겨우내 감추어둔 비밀을 사방에 흩어 놓고 있다.

도심 속 사찰에 자리 잡은 로터스 갤러리는 문화도시 광주 의 지역성을 주목하게 하는 공간이다. 예전 이곳에는 군인들이 일정과정을 마치려면 거쳐 가야 하는 군부대가 있었다. 하지만 군부대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며 갤러리 주변은 사철 꽃들이 피는 공원 숲길로 조성되어 도심 속 휴식과 놀이의 상징 공간으로 바뀌었다.



오건규 작 「동백과 소년」



갤러리에는 미리 연락드린 묵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제작년 ‘갤러리 GMA’ 기획 초대전 ‘봄꽃에 머물다’에서 느낀 사유와 절제, 담백한 색감의 풍경을 떠올리니 또 다른 변화가 기대되기도 한다. 오건규, 한희원, 박태후—지역 화단에서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를 대표하는 3인의 작가들은 풍경을 읽는 시선은 각기 다르지만 세 사람의 작가들은 이전에도 몇 차례 공동 전시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제 막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3월과 4월 사이 이 낭만(?)적인 전시회를 기획한 이이남 화가는 ‘세 분 초대 작가들을 통해 긴 기다림 후에 캔버스와 화선지에 봄꽃이 피는 신비로움 그 시너지 효과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며 올 한해 로터스 갤러리의 전시기획을 맡아 즐겁고 생생한 설렘을 느끼며 다음 기획전들을 기대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세 화가의 화실에서 걸어 나온 봄은 강렬한 화려함과 더러는 지독한 그리움, 무(無), 침묵으로 채색된 비워진 언어로 다가왔다. 화가는 붓끝으로 꽃망울을 머금게 하고 봄꽃들은 이곳 전시실 벽면을 꼭 짙 채 화사히 피어나고 있다. 한희원 화가는 ‘꽃으로 맞아 / 몸이 멎을 때/ 꽃으로 맞아 영혼이 멎을 때...’ 라고 자신의 시를 그림 옆에 적어 놓았다. ‘시서화 일치(詩書畫一致)’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花 花中有詩)’—노랑고 붉고 하얀 꽃들의 세상, 화폭에 담긴 강한 터치의 꽃들은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눈부셨지만 마음은 시를 감상하듯 오히려 차분해졌다. 겨우내 차가운 흙을 한줌씩 밀고 물을 빨아 들여 꽃이 핀다. 캔버스에 저 서정의 꽃을 피우기까지 화가의 시간은 얼마나 더디게 흘렀을까. 그림 앞에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읽는다. 빛을 품은 색채의 환상적 흐름과 낮은 그리움이 교차되는 ‘생의 꽃날’—오, 봄꽃이여! 누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살고 있다 말하겠는가.

가느다란 말뚝으로 분홍 꽃그늘 아래 종중종 서있는 새들의 고요—박태후 화가의 ‘자연 속으로’는 보일 듯 말 듯 봄은 매화 꽃잎이 밀어내는 바람소리와 청명한 봄 햇살이 물결처럼 섞여서 조용히 흔들린다. 누가 이 꽃들을 한꺼번에 피워서 바람 불고 비 내리는 세상의 봄날을 만들었을까. 참으로 경이롭다. 날아가 버리지 않고 전깃줄에 일렬로 줄지어 줄고(?)있는 먹빛 참새는 더러는 제 이름을 부르며 ‘ 짹짹’ 인다. 대상에 대한 작가의 성실한 접근과 독창성은 우리를 상



오건규, 한희원 전시 작품

념의 세계로 이끌기도 하고 때론 명상하게 한다.

그다지 넓지 않은 전시장을 천천히 돌아 와르르 붉게 핀 매화와 동백, 그림속의 한 소년을 만난다. 여백이 있는 동백 앞에서 꽃을 들고 순진하게 서있는 소년은작가의 다른 그림에서도 같은 차림이다. 그림속의 소년이 선비 화가라 불리는 묵은 선생님의 분신일거라 생각하니 슬그머니 웃음이 난다. ‘일생묵노(一生墨奴)’ 평생의 스승이셨던 아산 선생의 가르침을 새기며 근본을 담은 예술을 지키려는 묵은 선생님의 그림들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지만 절제와 여백으로 오히려 충만함이 느껴진다. 삶을 간소하게 하면 일상의 소중한 것들은 그렇게 돌아오리라.

전시장을 나서며 문득 꽃길음이 그리 더딘 것은 ‘세상에는 꽃의 속도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꽃의 속도가 아니면 잇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라는 식귀가 떠올랐다. 그렇게 겨울은 우리를 지나갔고 우리는 무각사 갤러리에서 디지털 세상 밖의 감미로운 봄날을 만났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산책 나갈 시간이다. ♪

문화현장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

박경동_광주문화재단 도시문화교류팀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이 사업을 주관한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5년 6월까지며, 사업비는 20억원이다. 소촌공단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낙후된 산업단지와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예술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소촌농공단지는 198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규모는 32만 4,000평, 68개 입주업체에 1,59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98%가 제조업(철강,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이며,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가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예술을 통해 노동의 피로를 달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조성된다면 산업단지에 활력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지를 물색하였고 현재 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낙점하게 되었다. 이 공간은 소촌농공단지와 소촌일반산업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2층 콘크리트 건물로 현재 민방위 지하대피소, 관리사무소,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시설활용도는 극히 저조하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부족과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이란 약점을 해소하면서 복합문화시설의 기능을 한



사업대상지 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아시아문화마루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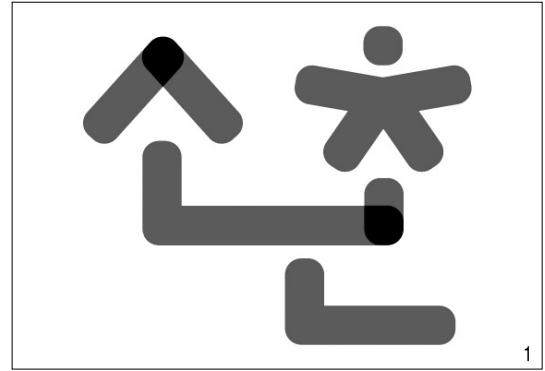
다면 본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엔 공간이 협소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심하던 중 아시아문화전당 컨스트할레(아시아문화마루)가 철거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전당사업의 쇼케이스 기능을 담당했던 컨스트할레를 이곳으로 옮겨온다면, 아시아문화마루란 장소성을 이어받는 동시에 건물외관의 디자인적 요소를 강화하고, 복합문화시설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란 장점이 있다. 우리는 고철로 파는 것 보다는 컨스트할레가 가졌던 공간의 맥락을 지역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논리로 아시아문화추진단과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소촌아트팩토리 사업에 콘테이너 27개를 무상양여받게 되었고,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물리적 조건이 갖춰지고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9월에 예산이 교부되었다. 출발이 늦은 만큼 9월부터 기존 건물의 안정도를 검사하는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추정공사비를 산정하는 용역을 숨 가쁘게 추진했다. 이후 행정, 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서는 소촌아트팩토리의 접근성 문제, 공간의 지속운영방안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이어졌다. 10월엔 사무국원을 선발했고 프로그램을 설계해 나갔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융·복합 예술을 창조할 가상공간 레지던스, 「선비열전, 소촌책방, 달리는 라디오, 맘 편한 광산」 등 라디오방송 시범콘텐츠를 제작하는 소촌 라디오방송국, 소촌아트팩토리 개관 전시, 연습 공간대관 프로그램이 제안 되었다.

아직은 물리적 공간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의 결과물을 예단할 순 없지만, 노력의 성과가 드러나는 조짐이 보인다. 기타연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20명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음악을 주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광산구 거주 30~40대 여성대상 '천 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란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관심이 높다. 또한 가상공간 레지던스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 소촌아트팩토리 전시 공간 사용문의,



1



2

1 소촌아트팩토리 CI
2 소촌라디오방송국-라디오박스

동아리 연습실 사용 주문 등의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촌아트팩토리는 서서히 주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멋지고, 안전하며, 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킬 공간을 차분히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또한 사전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소촌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안착시켜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해 본다.

문화현장

이야기가 있는 향교리, 대나무 정원과 미래(美來) 이야기

진시영_담양예술인의 집 대표, 재단 운영위원



오래된 향교 마을이 예술마을로 변신 새로운 방식의 공공미술의 제안

농촌은 대체적으로 문화수혜가 적고 문화향유 기회도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극심하며 우리 농촌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문화 인프라나 문화 평등 지수가 낮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전라남도 지역은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꼽힌다. 담양은 기후와 토질이 대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아 대나무 밭의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넓어 유명하다. 또한 가사문화와 정자문화가 발달한 곳이며 메타세쿼이아 길과 소쇄원, 떡갈비 등은 블로그나 인터넷상의 유명세를 타고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유명지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문화예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예술가와 동등한 문화생산자로서의 직간접적인 체험기회를 나누기 위해 “담양예술인의 집” 팀이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유형의 작품뿐만 아니라 무형(이야기)또한 가치 있게 생각하여 프로젝트 이름을 ‘이야기가 있는 향교리 대나무 정원

과 미래(美來) 이야기’로 명명하였다. 미래(未來)와 동음어인 미래(美來)로 ‘아름다움이 온다’라는 의미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에 밝은 미래가 오기를 바라며 뜻을 담았다.

향교리 마을 프로젝트의 공공미술로서의 새로운 시도는 작가들의 주관적 작품설치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람자의 입장에서 각각 공간의 역사와 성격에 맞는 지역커뮤니티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다. 수년간 방치되어있던 폐가를 예술 공간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흔적을 유지하며 보수하여 오픈 스튜디오로 만들었고, 이곳에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향교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근 대담미술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추억과 역사를 이끌어 내었다. 이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속에 얻어진 개인적 유대와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커뮤니티를 형성해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의 기반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또한 공간을 갖추는 것은 향후 지속적인 활용과 그 결과물이 아카이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의 일본 나오시마는 예술의 섬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연간 5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본래 이 섬은 산업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오랫동안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었으나 후쿠다케 소이치로라는 한 기업가의 철학과 신념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떠난 빈집을 개조하여 그 안에 현대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현재 살고 있는



오래된 집들도 주인이 직접 새롭게 꾸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지역의 전통과 현대미술의 절묘한 조화로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를 일구어 놓은 것이다.

향교리의 미술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재까지 축적된 향교리의 인프라와 지역색이 두드러진 소재를 결합하여 마을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거나 지역민들의 전통 축세품과 예술가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지역특색을 갖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설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아가 직접적 수혜가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협동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마을자체가 문화타운이 될 수 있는 주요 거점간의 연결고리를 꾸준히 찾아야 하며 관광객들에게 향교리만의 독특한 랜드마크나 소품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공공미술의 특징은 단순한 공

간조형물이 아닌 사회적, 인문학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커뮤니티의 일상을 살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관람자에게 유기체처럼 끝없이 변해가는 생동감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일것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바꾸기 사업이다. 수많은 작가들의 열정과 땀이, 쇠락한 도시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지역 재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향상 되고 지역의 품격도 높아졌다.

전국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76곳의 지역이 미술마을로 변모하였다. 올해 7년차 사업을 맞이하여 기존사례를 답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향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실험과 한국형 공공미술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읍성의 구조와 절양루의 복원 가능성

김덕진_광주교육대 교수,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

읍성은 관아가 소재한 고을의 방어를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으로 행정기능과 군사기능을 겸하는 공간이다. 그렇다고 모든 고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적이 들어오는 길목인 해안이나 국경 지역에만 있었다.

읍성이 있었던 고을은 북반은 곳인데, 광주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광주읍성은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완성되어 500년 가량 광주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읍성이 완성됨으로써 성곽과 성문 및 해자가 만들어지고, 관아와 학교 및 제단이 갖추어지고, 마읍과 시장 및 민속이 형성되었다.

'사이버 광주읍성'을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들

그런데 식민지배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광주읍성은 하나씩 해체되어가다가 어느덧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반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도성의 승례문, 전주의 풍남문, 수원 의화



절양루

성 등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현실을 감안할 때에, 광주읍성의 철거는 결국 우리 지역의 역사적 토대를 허약하게 하는 결과를 자아냈다. 광주학생운동이나 5·18 역사를 토대로 민주·인권·평화와 창조·문화 도시로,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가 읍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당한 예산과 공간 및 시간이 소요되는 읍성 복원은 현실적으로 지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이라면, 첫째, 사이버 상에 광주읍성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현재 본 재단에서 수행 중이며, 읍성복원과 관련해 매우 적절한 대안이자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도심재생 차원에서 각 지역의 읍성 복원사업에서 '사이버 광주읍성'을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둘째, 문화전당이나 광주역사박물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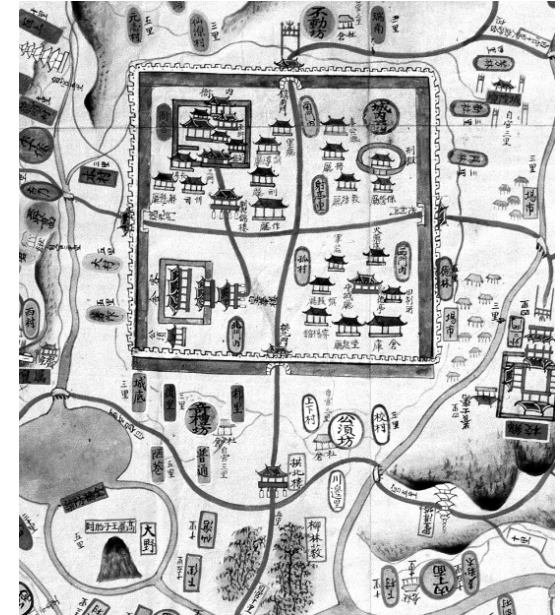
공간을 확보해 광주읍성 코너를 각각 두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에 도성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읍성의 대표성과 광주의 상징성이 담긴 절양루를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읍성을 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읍성이 존재한 해미, 고창, 낙안은 말할 것 없고, 대부분 사라진 대구, 청주, 나주 등지에서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행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광주읍성을 복원하지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광주읍성 복원은 가능한가? 광주 도심 구조를 감안하면 읍성 복원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세계 속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유구한 역사를 감안하면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이 올해 완료된 이후 광주읍성 코너 신설, 절양루 복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절양루 복원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한 것은 절양루 복원 탐색이다. 그 과정과 방법 및 의미를 하나씩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읍성의 문화 자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읍성 복원의 길을 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② 선택 대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이 바로 절양루이다. 절양루는 광주의 관문이었으며, 양재경이 말했듯이 '光營眉目' 즉 광주의 얼굴(간판)이었기 때문에 상징성이 가장 높다. 이전에 회경루 복원이 추진되었지만, 회경루보다 절양루가 공사 편의성이나 역사적 가치성 측면에서 훨씬 높다.
- ③ 그렇다면 어디에다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북문에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5리 지점 부근이면 충분하겠다. 이 지역은 부지 매입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 ④ 절양루를 복원할 때에, 단순히 누각만 복원할 것이 아니라 누각 부근을 매입하여 도심 속 소공원을 조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1872년 광주지도(규장각 소장)

〈절양루 해설〉

'절양'은 버드나무를 꺾는다는 뜻으로 이별을 의미하는데, 주로 관리들이 이임하며 이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고경명의 시에 "무진성 바깥 누문 앞 길에서(錢珍城外樓門道) / 버들가지 꺾으며 이별가 부르니 슬픔을 금할 길 없네(折柳歌殘無限悲)"라고 했다. 임진왜란 때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가 절양루에서 의병들과 함께 진주로 출병했고, 유평은 병자호란 때 모의청을 절양루에 설치했다. 절양루는 광주 선비들이 의병청을 설치하여 의병 출정식을 올렸던 곳이었다. 광주가 예로부터 의향이라고 일컬어진 데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렇게 분연히 일어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청년그룹

‘문화복덕방 탱글’은 광주 지역 예술발전소이다.

유은숙_ 문화복덕방 탱글 대표



복덕방 하면 내 어렸을 적, 땅을 파는 곳이 떠오른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바뀌어 불리고 있지만 복덕방이라는 정감어린 단어를 더 좋아한다.

문화복덕방 탱글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2013년, 어느 날의 이야기를 해보면~

음악하는 후배들과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하기로 기획하였다. 특별한 공연은 아니었다. 그저 매주 목요일, 7시가 되면 시민들이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게 하자는 단순한 공연이었지만 우린 모두 공연에 목이 말라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공연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즐겁기 위한 공연이었을 것이다. 이 공연을 위해 여러 장르의 팀을 섭외하였고 아무런 보수 없이 우리는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을 공연하면서 어떤 팀은 사라지고, 어떤 팀은 남게 되었다. 남겨진 우리들은 카페 공연 마지막 날, 아쉬워하며 끝내기보다 다음을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남겨진 우리들이 만든 곳이 ‘탱글’이다. 길을 가다 텅 빈 1층 가게를 덜컥 계약하였고, 페인트칠을 하고, 악기를 하나씩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이름은 고민할 것이 없었다. Tangle...

탱글은 얹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얹혀있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순간 역시 인간적인 관계, 또는 음악으로 얹혀있는 것이다.

예술로 공감대라고 하면, 깊게는 예술을 직업으로 삼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니 모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는가

그리고, 어렸을 적 정감어린 복덕방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문화를 파는 복덕방, 그러나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 ‘탱글’이다.

1년은 가족단위 공연을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공연하였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티켓을 팔기보다 인터넷으로 우리들이 직접 여기저기 홍보하였고, 우습지만 네이버 지식소핑에 티켓을 올렸다. 누가 사겠냐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눈이 펄펄 쏟아지던 날의 공연 티켓은 매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날의 공연은 지금까지 5번의 초청공연을 기록하였으며 탱글의 기본 공연이 되었다. 올해도 초청공연이 예약되어있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까지 무대포로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린 모두 열정적이었다. 열정은 새로운 공연으로 연결되었고, 2014년은 최다 국립광주박물관 공연을 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28일, 탱글은 다시 국립광주박물관 공연을 시작한다. 가장 큰 성장을 하게 만들어준 장소인 만큼, 올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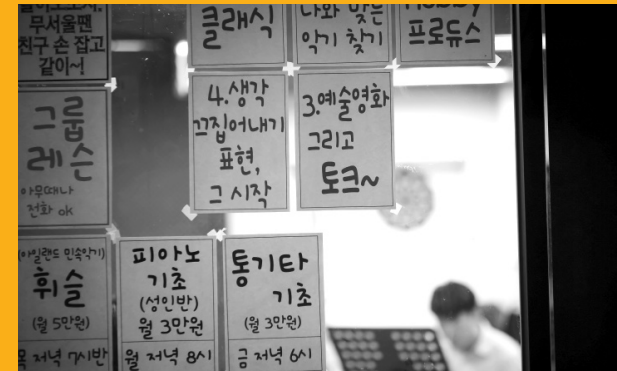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 공연

최선을 다해 공연을 할 것이다.

탱글은 공연만을 하지는 않는다. 교육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의 일지리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생각하고 추진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부처 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탱글 예술인들이 이 사업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처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대상이 다양하다. 의경, 학교밖 청소년, 근로자 등을 전부 진행하고 있다. 대상에 따른 교육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강사를 매칭해서 파견한다. 이 사업에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다. 처음 함께 한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제는 회사원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참 우리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탱글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복덕방레슨’이다. 예전에 땅을 문의하러 들어오시는 시민 분들이 꽤 계셨는데, “복덕방인데 왜 땅이 없느냐? 그러면 무엇을 파느냐?”라고 물으신 것에서 ‘아! 예술을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탱글 외부 유리창에는 딱지닥지 복덕방처럼 악기 프로그램 홍보문구가 붙어있다. 콘셉트는 복덕방 땅을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팔 수 있는 예술을 적어 놓은 것



복덕방 레슨

이다. 이게 재미있었나보다.

많은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탱글에서의 레슨은 그저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연결시키는 공간 제공의 역할만을 한다. 예술인들은 노력 한 만큼 시민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을 하게 된다. 탱글은 학원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공간이며, 우리들이 유지하는 작은 예술단체일 뿐이다.

공간 유지는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이것은 하나의 책임감이기도 하다. 단체에 대한 책임감이 아닌,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뢰’에 대한 책임감이다.

시민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발전시키고 받아들이며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가오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가 예술인들에게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고 노력한다. 이렇듯 탱글은 아주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

“탱글 소속 강사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술인에게 소속이란,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과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서일 것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계약서는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지금 있는 탱글인들은 함께 노력해 온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탱글의 예술인들은 전공생이 50프로 이하이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과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탱글에서 예술인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오픈 되어 있는 공간, 2015년도 이 작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2단계 3차년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본격 추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은 지역문화와 호남 지역 국학 진흥을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우리 재단과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본 사업은 문집, 지방지, 고서화, 고문서, 누정현판·금석문, 일기, 문중문헌, 호남인물 등 8대 분야에 대한 조사, 발굴, 번역, DB화(www.memoryhonam.co.kr) 및 목록집(호남문집, 호남지방지, 호남누정) 발간하고 있으며, 대중과의 감성소통을 위한 스토리책자,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 및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3차년도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사업 추진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광주시의 지원으로 『광주읍성, 책자 발간과 홈페이지 구축사이버(http://gjeupseong.org)을 완료했으며, 2015년도에는 읍성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광주의 문화관광·콘텐츠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봄맞이 임원 문화번개팅 떠나다



봄맞이 문화번개팅 모임이 지난 3월 21일(토) 오전10시부터 재단 이사진을 비롯한 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 일원에서 열렸다. 재단 임원 소통과 교류, 운영위원 인 진시영 작가의 문화 예술프로젝트 탐방 및 격려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모임은 우리 재단이 격월로 진행하는 문화번개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번개팅에 참여한 임원, 대담 미술관 관장님을 비롯한 진시영 작가님, 담양 수북에서 멋진 와인 파티를 열어준 김상윤, 정현애 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광주국제교류협의회 정기총회 참여하다

광주국제교류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2일(목) 오후5시에 광주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총 18개 회원단체 중 11개 단체(우리재단, 대동문화재단, 광주예총, 광주민예총,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재단소식

• 조직

제40차 전체운영위원회 열려



제40차 전체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 2일(월) 오후6시에 재단사무실에서 열렸다. 이승권 정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2015년 사업예산 논의, 운영위원 추천 및 선임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논의결과 2015년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영위원 7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사임 요청한 점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우선 사무처에서 추천한 2인을 신규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제30차 지역문화진흥회 이사회 개최

2015년 지역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지난 2월 9일(월) 오후6시30분에 재단사무실에서 열렸다. 강동원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2015 본회 수입금의 재단기금 및 사업비 기탁, 2015년 세입세출 예산 논의, 진흥이사 추천 및 선임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논의결과 본회 수입금은 재단기금 및 사업비로 기탁기로 승인하였고, 2015 예산과 임원 선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단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건 역시 원안대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승인했다.

문화재단, 조선대 국제협력팀,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광주관광컨벤션선부로,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시)가 참여하여 개최한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결산, 회계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5년 간사단체 선정, 2015년 사업계획 논의 건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다. 논의결과 2014년 사업결산, 회계결산은 광주시 보조금 정산보고로 대체 승인키로 하고, 올해부터는 감사를 선임하여 이를 보완토록 하였다. 한편 2015년 감사단체로 광주민회총, 부회장은 대동문화재단 백승현, 감사로 광주발전연구원 민인철로 선임하고 4월 중 워크숍을 개최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2015년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여하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6일(목) 오후5시에 광주장애인문화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 및 재정 보고, 공동대표단체와 간사단체 선임,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다. 회의 결과 총회 준비 소위가 제안한 공동대표단체, 협동사무처장단은 승인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는 차기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공동대표단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원소식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 열려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2월 26일(목) 오후6시에 재단사무실에서 열렸다. 백수인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15년 사업예산 추경안, 재단 임원 선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일부 사업의 수정과 보완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재단 임원의 친목과 교류를 위한 문화번개팅을 오는 3월 21일 담양 일원에서 개최기로 하고, 보다 많은 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사장단과 사무처가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회원소식

허달용 회원, 광주민족미술인협회 5대 신임회장 선출되다



광주민미협은 1월 24일 동명동주민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 제9차 정기총회에서 허달용 신임회장이 참석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조정태 전임회장의 뒤를 잇게 됐다고 밝혔다. 허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광주민미협은 수많은 진보미술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대외적 위상과 지지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실천을 통하

여 진보적 리얼리즘과 민족미술의 정체성을 확립, 미술인들의 복지 실현 등 광주미술계의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드림〉발췌

윤만식 이사,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 (사)전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선임되다



윤만식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 겸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월 29일 광주시 동구 한국종합예술 평생교육원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윤만식(63) 회장 겸 이사장 연임건을 논의,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2년간 다시 민예총을 이끌게 됐다. 윤 회장은 “민족예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회원 상호간 결속과 연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광주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바른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진보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사라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문화재단의 정책과 지원에 평등주의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남일보〉발췌

박호재 회원, 시민의소리 부사장 겸 주필로 선임되다



박호재 전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 실장이 2월 1일자로 시민의 소리 부사장 겸 주필로 선임되었다. 박 부사장은 전남대 건축공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뒤 엔지니어, 광남일보 전남매일 편집국장, 소설가, 공공미술 큐레이터,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문화사업실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리고 소설 창작집

회원소식

‘다시 그 거리에 서면’을 비롯, 장편소설 ‘눈뜨는 섬’, 인물평전 ‘윤상원 열사 평전’, 건축비평 ‘유럽건축순례’, ‘모두를 위한 예술’ 등의 책을 펴냈다.

—〈광주 시민의소리〉발췌

박강배 회원, 中 벽촌 소녀에서 판사로… 광주 ‘간바’가 만든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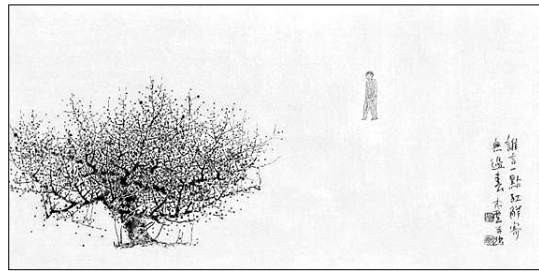


2월 6일 결혼을 한 중국 상하이 가정 법원 후치양웨이(27) 판사에게는 아빠가 둘이다. 인구 3,000명이 사는 호남성의 작은 농촌마을에 사는 농부와 광주문화재단 박강배(52) 실장이 그녀를 키운 아빠다. 한 해 35만 명이 시험을 봐 3만 여명만이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고, 이중 소수만이 판사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눈을 뜨면 먹을 것부터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시골 소녀가 어엿한 판사가 되고, 중국 유명 대학 교수와 결혼하게 된 과정에는 한국인 ‘간배(양아버지의 중국어)’가 전해준 기적이 있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박 실장은 중국어 과외를 해주던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중국의 가난한 아이를 입양해 키워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중국으로 건너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후치양웨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그녀는 “날아 준 부모를 버릴 수 없으니, 당신의 호적에는 입적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때부터 박 실장의 조건 없는 지원이 시작됐다. 딸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친부모 집에서 자라면서 한국의 박 실장이 지원만 해주는 식의 입양이 이뤄졌다. 박 실장이 내건 조건은 이랬다. 자신이 짜준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공부할 것, 정기적으로 성적표 등 공부 실적을 보내 줄 것이었다.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중국으로 보내야 했지만, 감동도 컸다.

—〈광주일보〉발췌

오건규 이사, 한희원 회원, 이이남 작가의 ‘봄날을 부탁해요’ 기획展 참여하다



봄날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두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봄날을 부탁해요〉라는 주제로 오건규, 한희원, 박태후 등 지역 중견작가 3명의 초대전으로 펼쳐진다.

오건규 작가는 서울과 광주, 송광사 성보박물관 등지에서 7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 아트페어 등 단체전에 200회 이상 작품을 출품했으며 제1회 대동미술상과 제15회 광주시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한희원 작가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33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국내외에서 개최된 다양한 전시행사에 초대됐으며, 대동미술상과 원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이이남 작가는 “겨우내 얼어붙은 하얀 캔버스와 매서운 바람한 떨었던 가녀린 화선지에 아름다운 생명력이 움트는 봄의 기운을 심어 달라고 했다”며 “작가들의 화실에 피어난 봄의 기운이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곁을 채울 것”이라고 전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BS뉴스〉발췌

박요주 이사, 제30대 광주서중 일고 총동창회장 선임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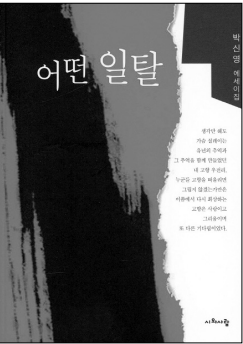
3월 19일 취임한 박요주(70) 제30대 광주서중 일고 총동창회장은 “동문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만나고, 그러다보면 소통하고 단합하고, 그리고 돕고 나누는 일의 중계역할을 하는 게 동창회”라며 “이를 통해 모교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펼쳐겠다”고 말했다.

회원소식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박 회장은 9급 말단에서 부이사관(3급)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공직 사회에서 '9급 성공신화'의 모델이 됐다.

박신영 신임운영위원
『어떤 일탈』 출간하다.



박신영 소설가는 전남 신안 출신으로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농민신문>에 단편소설 『날아가버린 새』, 당선, 소설집 『아름다운 약속』, 에세이집 『어떤 일탈』을 출간하였다.

남성숙 이사,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선임되다

남성숙 광주매일신문사 주필이 대표이사에 선임돼 광주지역 언론계 최초 여성 사장 시대를 열었다. 광주매일신문사는 4월 2일 기자 출신인 남성숙 주필·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이사는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무등일보에서 기지를



김향득 운영위원,
『불편한 진실 - 5·18민중항쟁 사적지 사진전』 개최(예정)



김향득 사진작가가 오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문화재단 1층 전시관에서 『불편한 진실 - 5·18민중항쟁 사적지 사진전』 연다. 2013년부터 5·18민중항쟁 사적지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는 김 작가는 찾아주는 이가 없이 5·18민중항쟁 사적지들의 원형들이 하나둘씩 훼손되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5·18사적지를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알릴 방법으로 사진전을 마련하고 있다.

시작해 광주매일 문화부장, 광주매일 발행 해피데이 편집국장, 광주여기자협회 회장, 광주매일신문 주필·이사를 역임했다. 광주시 최초 개방형 직위인 여성청소년정책관을 역임한 남 대표는 '호남사람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할 호남인물 100', '광주를 만나면 길이 보인다', '남도를 만나면 마음이 열린다' 등을 저술했다.

- <전남일보> 발췌

〈2014년도 재단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금 액		관	항		금 액			
총 계			993,443,211			총 계			993,443,211		
기부금	소계		146,808,000			재단 기금 적립			10,000,000		
	임원분담금		12,200,000			목적 사업비	소계		489,470,140		
	회비수입		32,428,000				지역문화조사·연구사업		437,811,500		
	특별후원금		102,180,000				지역담론 및 교류사업		11,934,510		
소계		416,010,000			시민문화사업		32,564,030				
사업수입	프로젝트 수입	문화체육관광부	320,000,000			경상비	회원 및 연대사업		7,160,100		
		광주시 및 광주문화재단	86,000,000				소계		133,174,461		
		북구청	4,800,000				인건비(상여금포함)		91,000,000		
	광고협찬금(창 광고)		3,000,000				회의비		1,052,000		
	참가비(탐방참가비 등)		2,210,000				사무실운영비		6,402,090		
							사무행정비		7,685,366		
							복리후생비(4대보험 퇴직금포함)		23,966,715		
							업무추진비		3,068,290		
사업수입	소계		9,489,513			사업 외 지출	소계		425,513		
	이자수입·국세환급 등		9,489,513				사업 결산이자 납부 등		425,513		
특별회계	고봉선생문적한글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지원금+결산이자)		300,051,581			특별회계	고봉선생문적한글화사업		300,000,000		
수입합계			872,359,094			지출합계			933,070,114		
전년도이월금(2014)			121,084,117			차년도이월금(2015)			60,373,097		

※ 전년도이월금(2014) : 프로젝트사업(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콘텐츠화·고봉선생문적한글화) 명시이월금(77,426,503원) 포함

함께하는 사람들

현재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

〈부이사장〉
강동완 조선대 교수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사〉
김나복 변호사
김대현 전남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김병기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상임대표
김선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반운영본부 팀장
김영주 (사)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윤기 전 아트광주 사무국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양형렬 국제로타리 전 총재
양혜령 치과 의사
오건규 화가
윤만식 광주민예총 대표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연수 광주MBC 국장
이철우 전남대 교수
정현애 전 광주시의원 부의장
지형원 문화통 대표
차일현 세무사, 전 조선대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염낙귀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승권 조선대 교수
위 원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항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한예원 조선대 교수

〈시민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도일 문화평론가
위 원 강혜경 퓨전국악그룹 아이라아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안태기 광주대 교수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정순기 광주시연극협회 회장
정현기 디자인 바우하우스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함께하는 사람들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강동완 조선대 교수

〈부회장〉
오형근 의사
김경옥 약사

〈진흥이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 성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HOL 대표이사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사 사장
이원형 호남대 교수
정병수 남부대 교수
정선택 (주)대운광고 대표
정재원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강리정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



창립 10주년 특집부록

[다시 보는 창립선언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광주문화수도>의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응 향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적 위치가 중앙과 중심보다는 지방과 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권력이나 자본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도시의 발전전략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문화가 삶의 중심이 되고, 문화가 산업을 선도하며, 문화 예술이 꽃피우는 21세기형 문화강국을 개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고 연대하며,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가 함께 하는 새로운 문화담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정신>을 승화시켜 한반도를 아우르고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로 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공동체의 지혜와 삶의 지표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과 함께 지역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남과 민족, 그리고 세계문화의 발신, 매개, 수신 of 핵심 거점이 광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적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문화교류재단>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소망을 아우르고, 생산적 담론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각 대학의 연구소와 지역사회의 연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호남이 지닌 역사적 정신사적 가치를 세계 보편적 담론으로 재구성하여 21세기 인류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와 실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문화교류재단> 설립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에 안진오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연균(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김동원(전남대 명예교수), 김필식(동신대 이사장), 남상규(부국철강 회장), 박석무(5·18 기념재단 이사장), 박홍석(KBC광주방송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기업인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교류재단> 설립추진위원회는 5월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회원 확보와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정신>의 문화적 구현을 통한 국가발전을 꿈꾸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지역문화교류재단의 설립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지역문화교류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창립 10주년 특집부록

창립의 기억 그리고 현재와 미래 - 역대이사장



제 1대 이사장 안진오(安晉翕)

1930년 전남 보성 출생.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장, 한국동양철학회 부회장, 한국유교학회 부회장, 한국철학회 부회장, 대한철학회 회장, 한국공자학회 회장, 향토문화 개별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전남대 명예교수이며, 아울러 동양문화학회 회장, 다산학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 2대 이사장 고후병문(吳炳文)

1928년 전북 남원 출생.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목포여자고, 광주사범학교 교사, 전남대 교수로 재임하다,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하여 해직, 이후 목포대 교수, 전남대 제13대 총장, 전남발전연구원장, 제33대 교육부 장관, 동신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제 3대 이사장 허성관(許成寬)

1947년 경북 마산 출생. 광주일고와 동아대 상대를 졸업한 뒤 뉴욕주립대에서 경영학 석 박사 취득했다. 이후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뉴욕시립대 경영대학 조교수,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였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광주과학기술원 제4대 원장, 제10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제6대 행정자치부 장관, 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 4대 이사장 문병란(文炳蘭)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순천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1959년부터 1962년까지 《현대문학》에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으로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왔다. 이후 〈시인의 간 2011〉 〈법성포여자(육필시집) 2012〉 등 32권의 시집과 다수의 산문집 간행하였고, 요산문학상, 광주예술상, 박인환시문학상 등 다수 문학상도 수상하였다. 광주민족문학작가회의 대표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시온고등학교 이사장, 서문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 5대 이사장 백수인(白洙寅)

1954년 전남 장흥 출생. 조선대 국어교육과와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거쳐 전북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방문교수, 조선대 대학원 부원장, 학생처장,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공동의장, 전국대학신문주간 교수협의회 부회장, 한국시학회 이사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198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 이사, 한국시학회 이사, 한국언어문학회 회장, 시인, 문학평론가 등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창립 10주년 특집부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주년 기념사



문병란_ 제4대 이사장, 시인

광주민주화운동의 동지이자 출타동시(啐啄同時)의 사제지간인 김상윤 재단 상임이사의 권고에 의해 재단 이사장직을 몇 년간 맡았다. 인류의 발생은 유인원시대부터라면 30만년이라고 하지만, 소위 문화란 개념에서 본다면 인류문화사 발생은 5천년 남짓하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동방고문화국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황하문명과 맞먹는 빼어난 단군성조의 고대문화국이었다. 공자가 이상주의적 원형으로 요순(堯舜)시대를 들거니와 그와 같거나 그에 앞서 신지문자 갑임토문자 같은 훈민정음의 원형에 해당하는 고대문자까지 발굴되는 것을 보면 신화시대라 하여 많이 덜고 보아도 우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북아 2만 여리의 강로와 문화를 향유하는 조선국 건설은 너무도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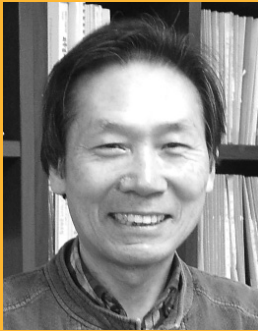
하지만 부족국가 이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정립과 통일과정에서 약화된 후 중원의 한민족에 밀려 사대모화사상이 문화기류가 되면서 우리민족의 빼어난 휴머니즘 흥익인간 이화세계, 사람을 한울로 삼는 경천애인(敬天愛人) 나아가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한울이다) 사인여천(事人如天: 사람을 한울로 섬겨라) 같은 지고한 인본사상 최고의 휴머니즘이 이 땅을 강국으로 크게 융성시키진 못했다. 도덕성을 잃는 조선조의 건국, 세종 같은 빼어난 왕이 나타나 이 땅의 100년 대개가 기약되었지만, 봉건왕조의 병폐인 왕자난이나 수양대군의 권력찬탈 이후 그 기강이 무너져 왜족의 침입이나 몽고족 한족들의 침략에 시달리었다.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망국의 길을 걸었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인 분단을 겪으면서 우리민족의 역량은 그 반도 유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남북 간 동서 간 그 민족적 역량인 문화유산을 재 발굴하고 정리하고, 거기에서 참다운 미래지향적 우리문화의 새로운 창조적 역량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전쟁의 위기를 막고, 위대한 민족사상의 세계화에 근간이 되고자 하는 문화혁명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함께 경제와 문화 나아가 아시아의 낙후를 씻고,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는 선도적 임무가 주어졌음을 명심하자. 🌄

창립 10주년 특집부록

창립의 기억 그리고 현재와 미래

- 10주년을 맞이하여



김상운_ 전 상임이사,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벌써 10년이 되었나? 하기가 50대 후반 팔팔할 때 재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내 나이 벌써 예순여덟이니 세월이 참 빠르긴 빠르군요.

재단을 만들던 당시는 '광주문화수도' 논의로 광주가 소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광주문화수도의 방향이나 규모, 내용 등이 모두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혼란이 중첩되고 있었지요. 저는 '광주문화수도'를 추진하는 주체로 '광주문화재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문화재단'이 1,00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광주문화수도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2,0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원 선생님을 비롯한 광주의 여러 선배님들께서 '호남학진흥원'을 만드는 일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주문화재단과 호남학진흥원은 그 구상 자체가 매우 판이하여 저는 고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배님들의 설득과 후배들의 간곡한 부탁에 광주문화수도를 조성하는 일과 호남학진흥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함께 추진하는 단체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배층은 '호남학'에 무게 중심을 두었고, 젊은층은 '광주문화수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광주문화수도 건설과 과거지향적인 호남학연구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단체 이름을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기획내용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체 명칭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야 했고, 여러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 아침 7시에 열리는 운영위원회만 거의 30차례 가깝게 열렸습니다.

단체 명칭이 '지역문화교류재단'으로 확정되자, 선배층의 반발은 의외로 거셌습니다. 교류라는 용어가 일본용어라는 등, '정체성도 없이 왔다갔다 교류나 하자는 것이냐'는 등, 엄청난 비난 속에서 '지역문화교류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역은 대부분 '지방'을 뜻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 않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혁신도시 상생방안 포럼

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호남지역이나 영남지역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남한과 북한을 각기 특수한 지역으로 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아시아지역이나 유럽지역 또는 라틴아메리카지역 등이 떠오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중심' 보다는 중동지역이나 동북아시아 등 각 지역이 모두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탈중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문화교류재단은 그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광주문화수도,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려면 우리가 먼저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규모 확대,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제안,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기초작업, 지역 문화 쟁점들 공론화 등, 이 좁은 지면을 통해 다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업이나 '사이버 광주읍성'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마실 세미나' 팀은 무려 9년 동안 매주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전국적인 자량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교류' 재단인데 막상 '교류' 사업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 전망이나 아시아적 전망이 보이지 않고, 국내의 교류도 부진해 보입니다. '창'이라는 계간지는 문화공론의 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좁은 틀을 벗어나 최소한 아시아적 담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금을 내주신 개인이나 회사가 많았습니다. 금호, 삼능, 부국, 보성, 금광. 많게는 6천 적게는 2천.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주신 것이지요. 평생회비 백만원을 내주신 분들도 8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양형렬 선생님은 혼자 오백만원을 내주셨고, 황영성 선생님은 60호 대작을 쾌척하여 큰돈을 만들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마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재단 설립 때부터 매 월 회비를 꼬박꼬박 내주시는 회원들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회원들이 우리 재단의 진정한 주인들이십니다. 재단 설립에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재단 화이팅!

창립 10주년 특집부록

간추린 백서

재단을 소개합니다!

●● 설립목적

“세계화, 지역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통해 문화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지역에서 축적된 문화 창조, 문화향유 역량과 학술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교류 연대하며, 세계적 수준의 문화발전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지원, 실천, 연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 목적사업

1. 지역문화 조사 발굴 콘텐츠를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
2. 문화예술 전문 인력양성 및 청소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문화 및 지역특성화 학술분야의 교류 연대 사업 실천과 지원
4. 지역문화, 한국문화, 세계문화의 발전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비전연구
5. 국내외 각종 학술행사 및 문화행사 개최
6. 문화예술, 교육, 연구, 학술, 행사 실적물의 출판, 배포
7.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진으로 본 재단 10년사

1998.	12.	19	무등산권문화유산보존회 창립
2002.	01.	08	호남문화진흥원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2004.	03.	20	재단명칭을 “지역문화교류재단”으로 변경
2004.	07.	22	지역문화교류재단 설립추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2004.	11	~ 12	지역문화교류재단 설립을 위한 문화마당(담양 소재원)
2005.	04.	15	지역문화교류재단 창립대회(호남문화진흥원설립 사업승계) 제1대 안진오(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사장 취임
2005.	08.	10	지역문화교류재단 창립총회
2005.	11.	01	계간지 문화담론지 『창』 창간
2005.	11.	10	〈왜 호남학인가?〉 학술심포지엄(전남대 호남학연구단 공동개최)
2005.	12.	21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법인등록(문화관광부)
2006.	02.	14	비영리민간단체등록(문화관광부)
2006.	04.	15	제2대 오병문(전 교육부장관) 이사장 취임
2006.	06.	23	재단부설 호남학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 발족



재단 설립을 위한 문화마당(소쇄원)



재단 설립을 위한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창립대회



문화담론지 『창』 창간호 좌담회

- 2006. 11. 10 창립 1주년 후원의 밤
- 2006. 11. 17 <호남학, 그 가능성을 묻는다> 학술심포지엄(전남대 호남학연구단 공동개최)
- 2007. 04. 02 제3대 허성관(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사장 취임
- 2007. 04. 16 창립 2주년 기념행사
- 2007. 11. 08 한국학진흥원 창립총회, 한국학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



2007 신년하례식



2007 한국학진흥원 창립총회

- 2008. 04. 29 창립 3주년 기념행사
- 2008. 11. 28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제1기 무돌아트컴퍼니)



2008 제1차 정기이사회 연석회의 및 신년하례식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무돌아트컴퍼니, 무돌아트갤러리 개관식 퍼포먼스



무돌아트컴퍼니 워크숍

- 2009. 05. 13 창립 4주년 기념 『문화·공유·소통, 2009가족어울림마당』
- 2009. 05. 28 제4대 문병란(시인, 조선대 명예교수) 이사장 취임
- 2009. 11. 28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제2기 무돌아트컴퍼니)



2009 가족어울림한마당



2009 회원배가운동 조장모임

- 2010. 06. 01 1단계 1차년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문화체육관광부 지원)
- 2010. 08. 14 영호남 합동세미나 <여수엑스포와 남해안 선벨트 발전과제>
- 2010. 10. 18 한국학진흥원 사무실 이전(사업 분리)
- 2010. 11. 25 창립 5주년 기념행사 후원의 밤



2010 정기이사회 연석회의



2010 영호남 합동세미나



2010 후원의 밤(임원합창)



2010 후원의 밤

2011. 10. 21 회원한마당 『나는 회원이다 - 신입회원 환영 및 회원 만남의 날』
 2011. 12. 08 2011가족어울림한마당



2011 가족어울림한마당(임원함장)



2011 회원한마당 『나는 회원이다』

2012. 06. 26 광주 풀리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 <광주 풀리 이대로 좋은가>
 2012. 09. 17 회원한마당 『나는 회원이다 II』
 2012. 11. 09 (사)민족미학연구소와의 교류 『광주 부산 시민문화단체 소통과 교류』
 2012. 11. 22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창립 및 개소
 2012. 11. 29 창립 7주년 후원의 밤
 2012. 12. 17 제5대 백수인(조선대 교수) 이사장 취임



2012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창립



2012 광주풀리 진단포럼



2012 후원의 밤



2012 회원한마당 『나는 회원이다 II』

2013. 03. 02 1차년도 사이버광주읍성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광주광역시 지원)
 2013. 03. 29 2단계 1차년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13. 05. 30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과의 교류 - 일본문화교류탐방
 2013. 06. 29 영호남 합동세미나 <민간교류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 모색>
 2013. 10. 31 제1회 회원음악회 『가을愛』 어울림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2013 영호남 합동세미나



2013 일본문화탐방 및 교류모임(우타고에합창단)

2014. 03. 03 2차년도 사이버광주읍성 구축(광주광역시 지원)
 2014. 11. 20 창립 9주년 후원의 밤



2014 후원의 밤



2014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이태호 강사)

2015. 03. 02 2단계 3차년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15. 03. 02 3차년도 사이버광주읍성 구축(광주광역시 지원)

현재 재단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 지역문화 조사 연구사업

우리 재단은 모든 문화의 모태임과 동시에 무한한 문화자원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문화에 주목하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자원을 수집·연구, 융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과 공동으로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 2013년부터 고봉 기대승선생양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문헌공 고봉 기대승선생 종가문적 한글화사업은 호남지역 국학진흥을 위한 민간-대학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 사업(6년차)

문집, 지방지, 고서화, 고문서, 누정현판·금석문, 일기, 문중문헌, 호남인물 등 8대 분야에 대한 조사, 발굴, 번역, DB화 및 목록집 발간, 스토리책자,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 및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개최

—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 어플 (www.memoryhonam.co.kr)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서중석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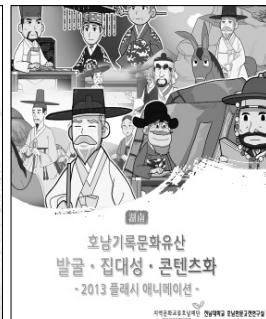
호남기록문화유산 스토리책자



호남기록문화유산 목록학총서(지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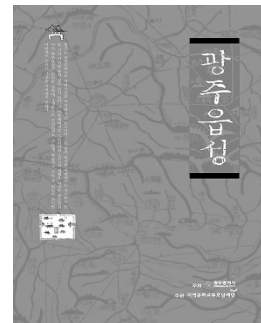


호남기록문화유산 목록학총서(문집)



플래시애니메이션

● 사이버광주읍성 구축사업(3년차) : 홈페이지(http://gjeupseong.org)



결과보고서



사이버광주읍성 홈페이지



자문화의



〈광주읍성, 역사문화자원화 및 활용방법〉 학술포럼

● 문헌공 고봉 기대승선생 종가문적 한글화 사업(3년차/협력사업)



고봉종가문헌집



고봉집백선



고봉기대승선생 학술발표회

• 학술심포지엄 개최(8년차)

- 제1회 학술 심포지엄(2008) “유배와 호남문화”
- 제2회 학술 심포지엄(2009) “기축옥사 재조명”
- 제3회 학술 심포지엄(2010) “정묘·병자호란과 호남의병”
- 제4회 학술 심포지엄(2011) “호남기록문화유산 조사와 정리, 그리고 전망”
- 제5회 학술 심포지엄(2011) “호남의 철의 정신과 그 기억”
- 제6회 학술 심포지엄(2011) “호남기록문화유산 조사와 정리, 그 의미와 콘텐츠 방안”
- 제7회 학술 심포지엄(2012) “조선시대 호남 교육의 실상과 위상”
- 제8회 학술 심포지엄(2012) “호남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
- 제9차 학술 심포지엄(2013) “남도의 음식과 문명”
- 제10차 학술 심포지엄(2014) “호남기록문화유산과 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
- 제11차 학술 심포지엄 (2014) “광주읍성, 역사문화자원화 및 활용 방안”
- 제12차 학술 심포지엄 (2014) “호남지역 여행문화의 흔적을 찾아서”



● 지역문화 담론 및 교류사업

지역 문화 현안과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 마련을 통해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창출과 지역문화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생동감 있는 지역문화담론을 담아내는 계간지 문화담론지 <창> 발간, 다양한 교류와 만남을 통한 수평적 문화연대는 문화도시의 내발적 역량의 토대 강화로 이어져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분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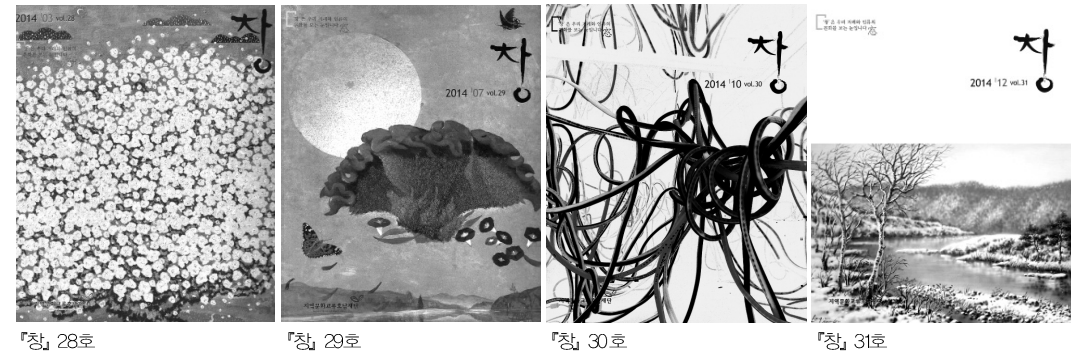
• 지역문화담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2013 우문한담포럼

2014 지역문화포럼

• 문화담론지 『창』 발간 (1~31호)



『창』 28호

『창』 29호

『창』 30호

『창』 31호

• 지역과 지역을 매개로 다양한 교류사업 및 협력



광주문화재단과 상호협력 협약



광주부산 시민문화단체 소통과 교류



호남학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포럼



문화탐방교류(일본 우타고에합창단)

● 시민문화 사업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적 공감대 없이 문화도시 광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역사문화시민대학, 광주정신시민대학 등 호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교육과 학습, 실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자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역사문화시민대학 운영(5년차)

- 제1기 '기후변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 : 문화강좌 5회
- 제2기 '역사 속의 질병과 인간생활' : 문화강좌 5회, 현장답사(진주성) 1회
- 제3기 '음식으로 바라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 문화강좌 4회, 현장답사(진도) 1회
- 제4기 '전라도 여행문화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서' : 문화강좌 4회, 현장답사(증도) 1회



제4기 시민대학 첫번째 강연



제2기 역사문화 시민대학 수료식

•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9년차)

- 제1기 '의향 호남과 광주정신의 발견' : 문화강좌 3회
- 제2기 '광주정신의 역사적 기원' : 문화강좌 2회, 현장답사(전남 담양) 1회
- 제3기 '광주정신의 역사적 발자취를 찾아서' : 문화강좌 3회, 현장답사(경남 진주) 1회
- 제4기 '문화와 예술 속의 광주정신을 찾아서' : 문화강좌 4회, 현장답사(경남 통영) 1회
- 제5기 '5·18정신과 글로벌리더십' : 문화강좌 4회, 현장답사(전남 목포) 1회
- 제6기 '문화로 통하는 광주정신' : 문화강좌 4회, 현장답사(전북 전주) 1회
- 제7기 '문화와 인권으로 만나는 광주정신' : 문화강좌 4회, 현장답사(전남 장흥) 1회
- 제8기 '문화, 인권, 삶 그리고 광주정신' : 문화강좌 4회, 현장답사(전북 김제) 1회



제6기 시민대학 강연



제6기 시민대학 현장답사(전주)



제7기 시민대학 강연



제7기 시민대학 현장답사(장흥)

• 방림 2동 어울림공부방과 함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추진(4년)

- 몸짓으로 말하는 “친구야 놀자” <이야기로 만나는 탈> (2011) : 나, 가족, 친구, 마을에 대한 이야기 탈놀이
- 생생통통 밋밋들 이야기 (2012) : 방림2동 상상토크(마을스토리텔링+마을영상)+일씨구마당극=마을축제
- 생생통통 밋밋들 이야기 - 방림2동 이웃과 친해지기(2013) :
통이야기보따리 프로젝트+밋밋들 문화공작소=마을축제
- 생생통통 밋밋들 이야기 - 밋밋들 연극놀이터(2014) : 밋밋들어린이극단 양성, 찾아가는 공연=마을축제



이야기로 만나는 탈 전시



2011 발표회 공연



밋밋들 어린이 인형극단 공연(미화어린이집, 밋밋들 한마음 마을축제)



밋밋들 마을축제



체험활동 (인형극 공연관람)



• 문화강좌·문화탐방, 소모임·문화번개팅 운영(총 17회)

- 김준태 시인의 세계문학사상강좌 운영(2007)
- 문화탐방(17회) : 경북안동, 서울고궁, 강화도, 강릉단오제, 경주(신라), 서울리움미술관, 파주헤이리마을, 세계도자비엔날레(이천 여주), 경남 통영, 충북 충주·단양(고구려), 충남 공주·부여·전북 익산(백제), 경북 고령, 경남 함양, 경남 합천 등 1박2일 또는 당일 문화탐방 운영
- 소모임 : 지역문화산악회(2012), 책마실 세미나(책읽기모임)(2007~현재)
- 문화번개팅(2012~현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광주아트페어, 여수엑스포 등 크고 작은 문화공간 투어 및 문화공연 관람



2008 경주 탐방



2009 안동 탐방



2014 합천 탐방



문화번개팅 <화려한휴가> 관람



책마실 세미나(소모임)



지역문화산악회(소모임)

● 연대사업

시민들의 창의적인 역량과 시민문화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 정책 대안 제시 활동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연대활동
- 광주미디어아트창의시민포럼 연대활동
- 바람직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 및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활동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차 토론회



아특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 출범식



광주문화도시 시민소통마당



민관합동워크숍



광주미디어아트 창의시민포럼 출범식



광주호 두농이기 전면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완료된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무돌아트컴퍼니(예술기업)' 운영(2009~2010)



무돌아트 상품



무돌아트 상품



보성차박물관 전시작품



무돌아트갤러리 전시



무돌아트갤러리 체험활동



총장축제 부스참여



사회적기업한마당-시민참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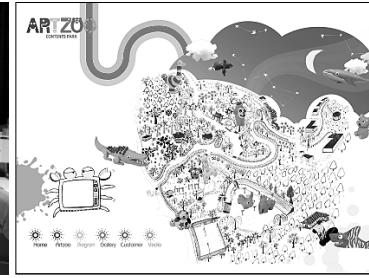


무돌아트갤러리 개관식

- 문화콘텐츠특성화브랜드상품 발굴사업 '아트주(Art Zoo) 프로젝트' 추진(2009~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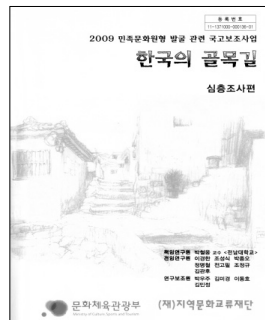
아트주 간담회



아트주 홈페이지

- 민족문화원형 발굴사업 '한국의 골목길' 추진(2009)

* 한국학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평가회의

- 아시아문화예술디지털공동체 구축을 위한 DB구축사업(2006~2007)

- (가칭)한국학진흥원 설립활동(2005~2010)



한국학진흥원 정기이사회



한국학진흥원 창립총회

재단의 아름다운 약속과 실천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재단은 아름다운 약속 다섯 가지 실천을 통해 앞으로 문화를 통한 교류로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나. 광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나. 지역문화가 활발히 소통하는 교류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지역문화담론 형성을 통해 문화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반영하여 사랑받는 문화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와 오얏꽃은 말이 없어도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 길이 난다”라고 합니다.

“어진 인(仁)이 있고 큰 덕(德)이 있으면 저절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길이 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창조적으로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적극 반영하고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 역대 임·직원

〈이사장〉

안진오	전남대 명예교수
故오병문	전 교육부장관
허성만	전 행정자치부장관
문병란	시인, 조선대 명예교수
백수인	조선대 교수

〈부이사장〉 후원회장

김동원	전남대 명예교수
서명원	(사)한국학호남진흥원 이사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병화	조선대 교수
강동완	조선대 교수

〈부이사장〉 운영위원장

김성윤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류재한	전남대 교수
김 성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김정희	시인

〈상임이사〉 사무총장

정규철	인문학연구소 학여울아카데미 이사장
김성윤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서정환	전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감사
이원형	호남대 교수
이기훈	

〈역대임원명단〉

강대권	(주)창호 대표
강동완	조선대 교수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강연균	화가
강원구	전 광주전남관광발전협회장
故강현구	광주시문화재위원
고경주	금광기업 사장
故김용배	전 목포대 총장
고영진	광주대 교수
고재철	전 한국CES 상무
고정주	나영산업 대표

김경선	시인
김경옥	약사
김나복	변호사
김대현	전남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김도일	문화평론가
김동욱	프리랜서
김동원	전남대 명예교수
김미경	전 아나운서
김민정	기획작가
김병기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상임대표
김병인	전남대 교수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석균	(주)세원 대표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
김선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팀장
김 성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김성산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김성현	광주대 겸임교수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열쑈 대표
김양수	전 장성군수
김영기	전남대 교수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팀장
김영주	(사)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영주	초당대 교수
김영집	(사)지역미래연구원 원장
김용민	승원대 교수
김용의	전남대 교수
김용혁	(주)HOL 대표이사
김원규	전 서남해인포럼 간사
김원중	전 광주국제영화제 사무국장
김유미	아시아빌레단 단장
김윤기	전 아트광주 사무국장
김장수	동양문화학회 이사
김재기	전남대 교수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김종일	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김준태	시인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김철신	전 전남도의회 의장
김태성	광주뉴스 기자
김태연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김형득	사진작가
김혜선	아시아문화개발원 연구원
김환호	(주)인포큐브 대표
김효식	전 동서남북포럼 대표
나경수	전남대 교수
나선후	미술평론가
나승만	목포대 교수
남상규	부국문화재단 이사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남재술	엔에스터 대표이사
류재한	전남대 교수
류효수	시낭송가
문병란	시인, 조선대 명예교수
문병호	전 광주여대 교수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박명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박신영	소설가
박요주	세무사
박유복	(주)인식나인 대표
박종안	조선대 교수
박태규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호재	전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박홍석	전 광주KBC 사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
백형주	문화도시공작소 인유 대표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서명원	(사)한국학호남진흥원 이사장
서상일	서예가, 금곡서당 훈장
서순길	한 출판사 대표
서순복	조선대 교수
서정환	전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감사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손용선	전남매일신문 이사
송정민	전남대 교수
송태중	호남대 교수
신상모	광주과기원 교수
신일섭	전남대 교수
안동교	조선대 한국고전번역센터 선임연구원
안상록	(주)사람 대표
안 진	전남대 교수
안진오	전남대 명예교수

안태기	광주대 교수
안희옥	전 광주WCA 사무총장
양명희	시낭송가
양봉모	불교방송 보도부장
양은용	원광대 교수
양형철	국제토탈리 전 총재
양혜령	치과의사, 백화포럼 공동대표
염낙귀	세무사
오건규	화가
故오병문	전 교육부장관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오형근	성형외과 의사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우제길	화가
위경혜	영화사연구자
유명의	동신대 교수
유인택	동양예술극장 대표
유제철	전 광주일보 사장
윤만식	광주민예총 대표
윤산자	전남대 교수
윤장현	광주시장
윤한석	(주)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강복	조선대 교수
이강희	조선대박물관 학예연구사
이거표	전 조선대 겸임교수
이근재	동아시아문화중심 상임위원
이기승	보성건설 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동호	한국정치문화진흥원장
이명규	광주대 교수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대표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만영	하늘땅풍물놀이 단장
이만원	광주대 교수
이병욱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대외협력관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이봉규	전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이상식	전남대 명예교수
이상옥	(사)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
이설제	사진작가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사 사장
이수행	프리랜서
이승권	조선대 교수
이승기	삼능건설 회장
이양현	전 삼능건설 부사장
이연수	광주MBC 국장
이원형	호남대 교수

이윤선 목포대 교수
이은나 남부대 교수
이재복 목포대 교수
이정일 전 서구청장
故이준영 전 장성농협전무
이철우 전남대 교수
이한숙 회계사
이항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임광택 진흥건설 회장
임승호 마을운동가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
장기영 조선대 교수
장석원 전남대 교수
장용석 전 광주월드뮤직프로듀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전고필 독립기획자
전용호 광주전남 소설가협회 회장
전진숙 광주시의원
전창배 BK투자정보
전홍준 의사
정간재 전남과학대 교수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광주 서예가
정규철 인문학연구소 학여울아카데미 이사장
정대영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명철 한얼미디어 대표
정민룡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정병수 남부대 교수
정병주 (주)세호 대표이사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 관장
정삼조 대안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총감독
정선택 (주)대운광고 대표
정순기 광주시연극협회 회장
정영숙 드림기획 대표
정용화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정재원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정재중 문화재청 부이사관
정찬경 성악가
정 철 호남대 홍보실장
정한기 아트주 대표
정한애 전 광주시의원 부의장
정해숙 전남대 교수
정환담 광주유교대학장
조광향 전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기선 변호사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조성식 전 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협력처장
조영임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조윤탁 동산대 교수
조익문 전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부장
주 흥 화가
지병문 전남대 총장
지형원 문화통 대표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차일현 세무사
채종기 은암미술관 관장
천득염 전남대 교수
천형욱 변호사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최석현 의사
최산형 열린가족상담센터 소장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최혜영 전남대 교수
한여원 조선대 교수
한유진 휴디자인 대표
한희원 화가
행 법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달용 광주민미협 회장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허소영 (사)광주내일을여는맛진여성 회장
허 진 전남대 교수
현 지 무등산 원호사 주지스님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
황병하 조선대 교수
황영성 화가 조선대 명예교수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사무처장〉

김병인 전남대 교수
김향득 사진작가
이동호 한국정자문화진흥원장
김도일 문화평론가
배경순 전 광주KBC 광고사업국 부국장
이기훈 상임이사

〈사무국장〉

이채연 전 대나무축제위원회 기획이사
김원중 전 광주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장용석 전 광주월드뮤직프로듀서
신호상 전 무돌아트컴퍼니 기획팀장

〈평생 특별회원〉

고재득	길광채	김 성	김 환	김국웅	김나복	김남수	김동열	김병연	김성윤	김성신	김성현
김연경	김영기	김영주	김영집	김종근	김하림	김향득	나승만	노금선	류재한	마형철	문병만
박산정	박흥석	반상진	백형주	서명원	서장남	송장민	안순일	안종일	안진오	양명희	양형철
양해령	우윤탁	우제길	윤재국	윤태원	이계원	이근재	이상식	이정룡	이정일	이화성	임내현
임성복	장기영	장두석	장휘국	정규철	정대영	정동년	정찬용	정한애	정환상	조윤탁	조익문
지병문	차일현	차종순	천득염	최무진	최병관	최병근	최산형	허 정	허성관	현 지	홍경표

〈유지회원〉

강경희	강규여	강기정	강대홍	강동완	강리정	강명호	강성욱	강정민	강지희	고영주	곽규호
구승연	구재명	국형철	권수용	권순홍	김경숙	김계육	김기곤	김대인	김덕심	김덕진	김도일
김동일	김동주	김미선	김민정	김병기	김상집	김선옥	김선주	김선출	김산태	김 성	김세민
김세아	김순권	김순영	김 승	김신희	김연경	김영빈	김영수	김영순	김옥렬	김용관	김용남
김용렬	김용민	김용석	김원중	김윤기	김은지	김 인	김인현	김재수	김정옥	김정희	김종영
김종필	김주신	김지원	김진숙	김창환	김태용	김한식	김해룡	김현희	김호균	김호인	김 환
김환호	김효삼	김홍조	김희송	김희정	나건용	남상철	남택송	노상현	노해득	도남용	류영국
류재한	문승훈	문재철	민인철	민형배	박강배	박미경	박산정	박세진	박윤모	박은해	박재만
박정희	박종서	박해장	박호재	방현용	배미경	배민희	백수인	백승현	범희강	변길현	서명원
서명하	서순길	서순복	서옥희	서인석	서정환	서정훈	서희석	설영재	손봉채	송광룡	송문섭
송선기	송영희	송운근	송윤순	송장민	송진희	신민석	신영용	신재호	신정하	신종남	신호상
안선영	안진오	안현주	양권길	양교화	양승찬	양해근	양해령	양호일	엄수경	염낙귀	오권진
오명규	오미란	오영이	오향수	오형근	위경혜	위주영	유서현	유일남	윤만식	윤봉란	윤재득
윤재선	이경률	이기훈	이대성	이명규	이명자	이무용	이병선	이병욱	이상걸	이상배	이상철
이상호	이선옥	이선희	이승권	이승오	이승재	이연수	이용남	이은하	이아남	이아행	이인근
이재복	이재석	이재중	이정룡	이종식	이창면	이 철	이태홍	이광열	이항준	이현옥	이형완
임기주	임동호	임수정	임종채	장석원	장성훈	장주현	전고필	정경운	정민호	정병수	정봉남
정선택	정성구	정숙인	정은미	정재원	정장혜	정태정	조경희	조성식	조영채	조용준	조일형
주남식	주재만	주 흥	진시영	차미향	차종표	천형욱	최광은	최병량	최산형	최성룡	최영태
최은영	최이성	최정동	최 현	최형천	하용운	한여원	한정희	한주연	한희원	함성철	허갑순
허달용	허장용	허 진	현석룡	홍재용	황병하	황용하	(주)이코랩				

〈기금·광고 협찬〉

광주대성학원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광주은행
금광기업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남양건설 주
남영건설	대운광고	박요주세무회계사무소	보성건설
부국철강(주)	삼성전자주	삼능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태평엔터카	제일화재	플러톤아카데미	한국토지공사광주전남본부
목포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광주과학기술원		

※ 현재 후원하고 있는 회원명단입니다.
※ 혹시 명단이나 직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재단 사무처(062-234-2727)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회원 앙케이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이다'를 앙케이트 했습니다. 그 가운데 16편을 선정해 실습니다. 답장을 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카피숍**이다.
향내음 짙고 나눌 수 있는 애깃거리가 많은 곳이다.
- 김병연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내 천금같은 돈을 꼬박 띠어가는 곳이다.
그럼에도 기쁜 것은
변함없이 문화를 가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 이태홍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문화의 소통 창구**이다.
- 이명자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문화소통의 장**이다.
- 안선영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행복 바이러스다.
- 정은미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문화의 창**이다.
- 오미란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오작교**이며, **색연필**이다.
- 허갑순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주먹밥**이다.
지역문화공동체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다.
- 김향득 회원

지역문화교류재단은 **천불천탑**이다.
민초들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 주변의 소소한 바람을
담고,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가꾸어가는 만인이 주인
공 되는 재단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 강성욱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빛'** 이이라
빛고를 문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기에 때문이다.
- 조선희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갈등**이다.
창조는 갈등 속에서 탄생하기에.
옛것과 새것의 갈등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폭발력을 키우며, 새로운 변화의 발단이 되는
그 갈등은 각종 활동이 다원화되는 지점에서
절정에 이르기 때문이다.
- 김원중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비움과 채움**이다.
지역문화가 모여 채워지고
다시 비워져 새로움을 더해가는 곳이다.
- 김미남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사람**이다.
사람을 가장 많이 모으는 요소는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곧 문화이기 때문이다.
- 김도일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호남권 문화의 터미널**이다.
- 강대홍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그물**이다.
광주 문화정책 시민네트워크의 대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네트(그물)처럼 연계망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단체 간 소통과 매개가 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그물망에
걸리면 회원이든, 정책파트너이든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 관계의 그물망이 날로 촘촘해지길 바란다.
- 백승현 회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호남의 당산나무**이다.
어느 시골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당산나무는 그 마을
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한다. 재단이 호남 인문학의 수
호신이었으면 한다.
- 허진 회원





편집 후기

4월! 흠어지는 산벚꽃 그늘 아래 문득 생각나는 글귀.

君不見 군불견	군자여 그대는 보지 못 하였는가
黃河之水天上來 황하지수천상래	황하 강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奔流到海不復廻 분류도해불부회	바빠 흘러 바다로 가서는 다시 못 옴을
又不見 우불견	또한, 보지 못하였는가?

풍류는 윤회하는가?

하지만 꽃피고 지는 4월이 새삼 감동스럽거나 사랑스럽지만은 않다.

꽃잎 가득한 지금 여기, 그 이파리 하나에서 발견하는 우주(宇)의 파노라마는

가히 숨가쁘고... 다시 생각해봤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냥 두었다.

10년!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의 시간은 앞선 시간들을 따라 가겠지만, 이제는 잘해야 하지

않을까-불가피! 지역의 문화적 책무와 적절하게 마주하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무게감.

공자께서 말씀하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하셨다. 10년의 길 위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즐거움(樂)은 아직 미완이다.

문화로 행복한 시대, 소프트 파워의 시대다. 문화향유, 문화

거버넌스의 보편화를 위한 정책 진단과 방향, 과제를 문화재

단으로 풀어 보았다. 좋은 생각들이 모이면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10년의 변화와 10년 후의 예측이 즐겁다.

창 편집실의 김민정 팀장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